

발간등록번호

51-611345-000017-01

【 한강 이야기 총서 】



한강의 사람들

미래한강본부

【한강 이야기 총서】



한강의 사람들

미래한강본부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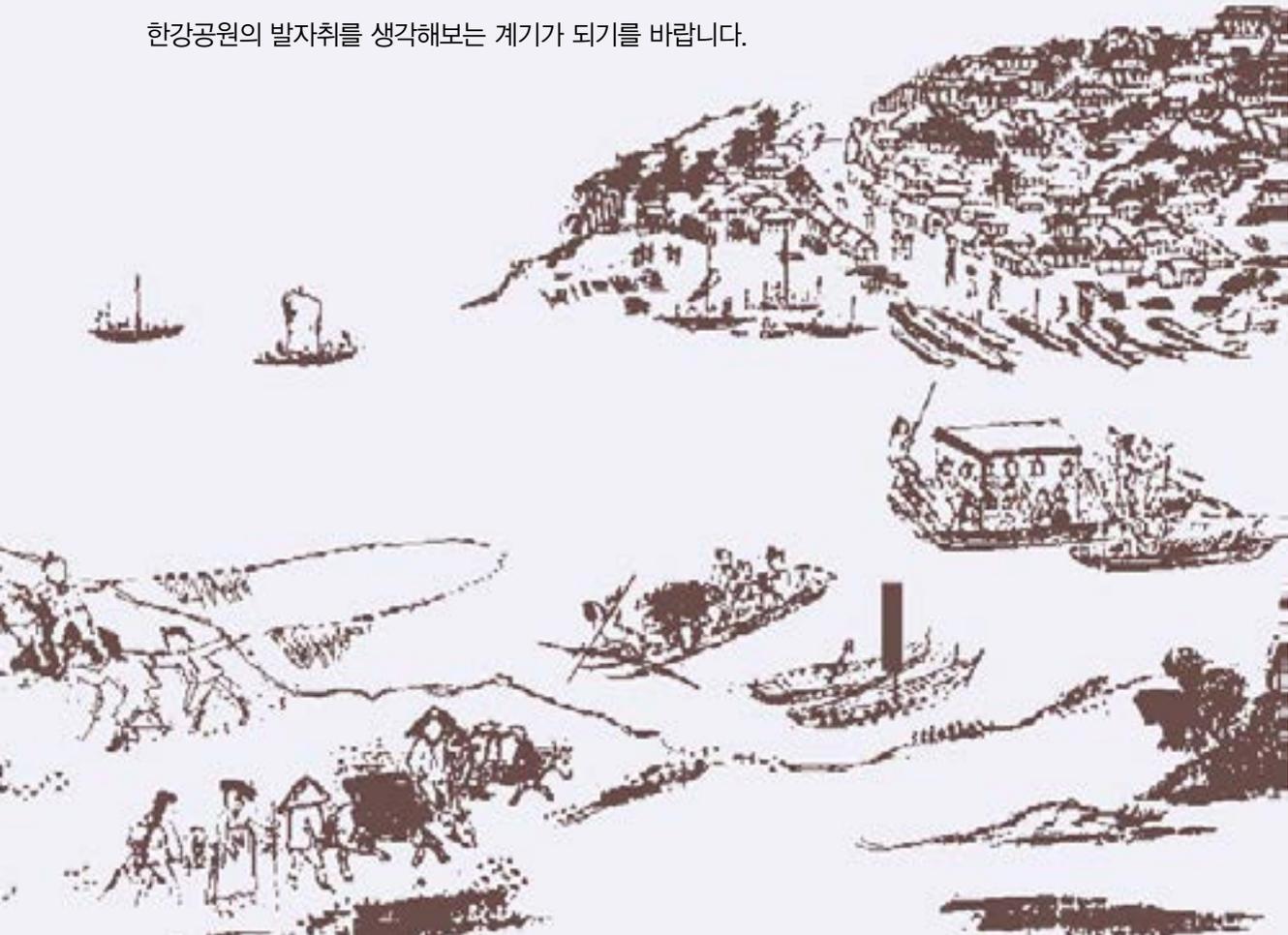
2024년부터 발간된 『한강 이야기 총서』는 한강의 근현대사 및 민속, 홍수와 치수 등 다양한 한강공원의 역사를 주제별로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한강 이야기 총서』는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읽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 다양한 기록물과 함께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1권에서는 한강의 역사 중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으며, 2권은 문화예술, 3권은 민속, 4권은 홍수와 치수, 5권은 명소와 유람, 6권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디 장별로 필자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한강 이야기 총서』는 연구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서울 시민 누구나 편하게 한강의 역사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기획 및 제작한 책자로 장별로 필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서는 관련 기사 및 수록된 내용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 기관 및 단체에서 발간한 연구 논문, 단행본 등 다양한 자료와 기록물을 함께 활용하여 새롭게 편집 및 정리된 책으로 근거 자료 및 문헌은 참고문헌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서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한강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이어질 한강공원의 발자취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주관한 “한강 기록화 사업”을 통해 수집된 한강 역사 기록물을 활용한 이야기책이다.
2. 이 책에는 지도, 사진, 그래프 등 데이터화한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분야별 전문 기관 및 단체의 연구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3. 사업이나 축제 명칭과 같은 고유명사는 장별로 처음 언급될 때 작은 따옴표로 표기되었다. (예시: ‘공유수면매립사업’ 등)
4. 연대에 따라 명칭이 변화하여 온 장소는 시대별로 당시에 사용했던 장소명을 사용했다.
(예시: 1981년부터 1983년까지-제3한강고 고수부지체육공원, 1986년부터 2009년까지-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2009년 이후-잠원한강공원)
5. 본문은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을 되도록 준수하되 정책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나 고유명사인 사업 명칭은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되었다.
(예시: 한글 띄어쓰기 규정은 ‘한강 변’이 원칙이나 정책적으로 고유명사화 하여 주로 ‘한강변’으로 표기하기에 후자를 사용)
6. 본문의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였다. (예시: 바베큐(X), 바비큐(O))
7. 시설의 명칭은 공식 명칭을 준수하되, 일부 명칭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예시: 공식 명칭인 서울종합운동장 대신 시민에게 익숙한 잠실종합운동장을 사용)
8. 도서에 수록된 기록물은 제목, 시대, 소장처 혹은 제공처 순으로 표기하였다.
9. 미래한강본부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별도로 제공처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기록물은 소장처 혹은 제공처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한강기록화지도 - 사람들

찾아보기



1 마포나루 도선전경 | 1920년대 추정
 마포나루는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이자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충청·전라경상도의 곡물과 견어물, 농산물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2 난지도 수해현장 | 1976년
 1976년 8월 난지도 수해현장사진입니다. 8월 12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 등 많은 홍수피해를 입었습니다.



5 한강철교 | 1930년
 한강철교는 한강 위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교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노량진동을 잇는 철도 전용 다리입니다. 한강철교는 건설 당시 가장 큰 규모로 제물포와 노량진을 잇는 철도와 연결되었으며 이 철교를 통해 경인선 철도가 통행했습니다.



6 용양봉저정
 용양봉저정은 1791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의 원통한 죽음을 슬퍼해서 수원에 있는 아버지 무덤인 현릉원을 자주 참배했다고 해요. 정조가 현릉원을 갈 때는 배다리를 놓아서 노들강(한강)을 건넜는데, 당시에는 배다리를 놓고 한강을 건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쉬기 위하여 이곳에 정자를 지었다고 해요.



9 서울 암사동 유적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신석기 유적 중 최대 마을단위의 유적이기도 하지요. 암사동 유적에서는 어업과 관련하여 그물추가 다수 발견되었답니다.



3 베를린올림픽 이후 경성비행장에 도착한 손기정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경성비행장으로 돌아오는 귀국비행은 대형행사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청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일본은 손기정이 금메달 시상식 때 월계관수 목욕으로 일장기를 가린 일과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을 빌미로 경성비행장에 도착한 손기정을 연행하듯이 끌고 갔습니다.



4 밤섬의 묵수 | 1960년대 추정
 한강 개발로 폭파되기 이전의 밤섬은 현재보다 섬의 지대가 높았고,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밤섬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 주로 종사하였는데, 한강을 떠다녔던 배 중 95%가 밤섬에서 만들어졌을 만큼 나무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7 몽촌토성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뻗어 내려온 자연 구릉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든 삼국시대 백제의 토성입니다. 몽촌토성은 백제 초기 서울 지역을 수비하는 토성으로 이용되었답니다.



8 양택식 서울시장 잠실대교 시찰 1972년
 잠실대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과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을 잇는 한강의 다리입니다. 해당 사진은 1972년 양택식 서울시장의 잠실대교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실대교는 영동 및 잠실지구 개발과 연계 건설되었으며, 사진이 찍힌 당시 197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68%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 ① 마포나루 도선전경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33P
마포구 마포나루길 422
- ② 난지도 수해현장
서울기록원 소장 | 76P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③ 베를린올림픽 이후 경성비행장에 도착한 손기정 | 손기정 기념관 소장 | 52P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④ 밤섬의 묵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26P
영등포구 여의도동
- ⑤ 한강철교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74P
동작구 본동 ~ 용산구 이촌2동
- ⑥ 용양봉저정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 71P
동작구 노량진로32길 14-5
- ⑦ 몽촌토성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 12P
송파구 올림픽로 424
- ⑧ 양택식 서울시장 잠실대교 시찰
서울기록원 소장 | 78P
송파구 잠실6동
- ⑨ 서울 암사동 유적
국가유산청 제공 | 11P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58

한강 사람들 주요 기록물 분류

- 1. 필름 사진: 27건 338점
- 2. 도서간행물: 12건/점
- 3. 박물: 8건/점
- 4. 문헌: 3건/점

01

한강을 삶의
터전으로
만든 사람들

- 01 한강에 정착한 사람들 7
- 02 물길을 이용한 사람들 12
- 03 한강을 향유한 사람들 29

02

한강을
오고간
사람들

- 01 한강을 여행한 사람들 43
- 02 한강에서 한강변으로 50

03

한강을
두고 싸웠던
사람들

- 01 한강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 57
- 02 한강을 요새로 만든 사람들 63

04

한강의
풍경을 바꾼
사람들

- 01 한강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들 71
- 02 산업화시기 한강의 풍경을 바꾼 사람들 76
- 03 한강을 친수공간으로 만든 사람들 81



01

한강을 삶의 터전으로 만든 사람들

01 한강에 정착한 사람들

02 물길을 이용한 사람들

03 한강을 향유한 사람들



01

한강에 정착한 사람들



마포나루 풍경 | 1930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강은 예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요새의 역할을 했으며 한반도 전역과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자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더불어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종교적 **제의**뿐만 아니라 문학, 그림 등 문화예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사시대 한강은 사람들의 식수와 식량을 공급해주는 장소였고, 삼국시대부터 개항기까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현대는 종합개발을 통해 기적을 이룬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강은 전 시대를 걸쳐 서울의 중심에서 시민들의 희로애락과 후대에게 전승 할 값진 경험의 산물을 가득 담은 채 오늘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포나루 풍경

한강은 삼국시대부터 많은 사람과 물건들이 오가는 통로였습니다. 마포나루는 조선시대 가장 번성했던 나루터 중 하나로 많은 물산이 모였습니다.

제의

제의는 제사와 의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한강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선사시대의 한강 생태계는 오늘날과 달리 항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땅 일부를 제외하면 숲으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당시 한강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여러 동물과 어류·패류·곤충류·조류 등도 지금보다 다양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 수량이 풍부하고 곳곳에 냇강에 발달했으며 강안 좌우 언덕의 우거진 숲, 그 둘레에 식생하는 짐승 등은 한강 주변에서의 주거를 가능하게 했어요. 한강 유역에서는 사람이 살았던 것은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부터 약 1만년 전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어 시기를 의미해요.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은 과일과 식물 등의 채집뿐 아니라, 사냥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며, 들판에 막집을 짓거나 동굴 또는 바위 그늘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은 한곳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살지 않고 유목민처럼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계절에 따라 끊임 없이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강변에 남아있는 구석기시대 사람의 흔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면목동 유적 발굴 유물 | 종량구청 제공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은 막집이나 움집을 짓긴 하였지만 주로 이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유물을 통하여 살았던 흔적을 유추할 수 있어요. 한강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따라 다양한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변의 유적지는 주

면목동 유적 발굴 유물

면목동에서는 다수의 구석기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돌을 가공하며 발생된 수많은 파편들의 흔적들로 볼 때, 유적지에서 석기가 직접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발견된 석기에서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직접 생활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역삼동 유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청동기시대 석기류·토기류·석부 등이 출토된 집터입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이지만 구석기시대의 유물도 함께 발굴되고 있습니다.

가락동 유적

가락동 유적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유적입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이지만 구석기시대의 유물도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면목동 유적

면목동 유적은 서울의 한강 유역에서 발굴 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입니다. 서울 지역의 구석기시대 문화생활의 실체를 확인해 주고 있지요

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마을터이며 구석기시대만의 유적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자연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여러 유적지에서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주먹도끼, 굽개, 찌르개, 찌개 등의 유물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아님에도 유물이 발견되는 유적에는 서울의 **역삼동 유적, 가락동 유적, 암사동 유적**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강변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면목동 유적**은 서울을 흐르는 한강 유역에서 발굴 조사된 유일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서울 일대 구석기시대 문화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면목동 유적은 유적의 앞쪽에 중랑천을 배경으로 한 넓은 들판이 펼쳐 있어 구석기시대인들의 주거지로써 이용되기 좋았던 당시의 여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에 사람이 정착하여 산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한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경기도 양평 양수리 부근에서 만나, 서울을 관통하고 김포평야를 가로질러 서해로 흘러나갑니다. 강의 총 길이는 494km이며 여러 지류까지 포함한 유역은 26,000km나 됩니다. 이렇듯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한강은 흙과 모래를 운반하여 인근 유역을 비옥한 충적지로 만들었고, 이러한 충적대지에 선사시대 사람들은 본류부터 지류까지 다양한 지역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북한강에는 **화천 거례리·원천리·위라리 유적, 춘천 중도·우두동·근화동 유적** 등이 있으며 남한강에는 **정선 아우라지 유적, 광주 곤지암 유적, 충주 탑평리 유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 본류에는 어떤 고대 마을들이 있었을까요?**



북한강 |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김지호

화천 유적

화천의 선사유적은 주로 파로호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위라리부터 용암리, 거례리, 원천리로 이어지는 충적대지의 넓은 범위에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이르는 대규모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춘천 유적

춘천은 비옥한 충적대지로 북한강 유역에 속하며 소양강과 합류되는 지점에 자리한 분지입니다. 분지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했습니다. 강가 인근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선 아우라지 유적

태백산맥에 자리한 정선은 남한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에는 크고 작은 하천 동굴이 있기 때문에 구석기시대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는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광주 곤지암 유적

경기도 광주시는 남한강 하천 지류를 중심으로 좁은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삼국시대의 유구들이 발견됩니다.

한강 본류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평 양수리에서 만나 시작되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한강 본류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평야가 있어 사람이 살기 좋았을 뿐 아니라 서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었기에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을 이루었고 양평 양수리 유적, 하남 미사강변도시 유적, 구리 토평동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 등에서 다양한 고대 마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평 양수리 유적

양평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합쳐지는 곳입니다. 양평 일대는 높고 낮은 산지와 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넓은 지역에 강물이 흠과 모래를 운반하여 쌓인 비옥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에 구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양평 양수리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등의 집터와 유물이 고르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평 양수리 |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김지호

하남 미사강변도시 유적

하남은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서쪽에는 광주 산맥이 있고 북동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남은 농경과 운송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수 천년 동안 사람들이 생활해 왔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사람들에게 의해 대규모 경작지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유구(遺構)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고대 마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유물에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석기, 청동기시대의 가락동식 토기 등이 있습니다.

유구(遺構)

유구(遺構)는 유적(遺蹟)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지표를 변경(성토, 굴착)하여 만든 옛 시설물로서 건물지, 고분, 주거지 등의 시설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리 토평동 유적

구리는 경기도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서쪽으로는 아차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지가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한강과 왕숙천이 감싸고 있습니다. 구리 토평동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등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고, 교문동 일대에서는 구멍무늬토기를 비롯한 민무늬토기편과 돌도끼, 돌칼, 돌화살촉, 숫돌, 가락바퀴, 반달돌칼 등 청동기시대의 유물들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암사동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은 경기도 구리, 서쪽은 광진구, 남쪽은 송파구, 그리고 동쪽은 경기도 하남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동구 일대는 선사시대 이래 한강 유역 문화의 발원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암사동 유적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되는 지층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각각 신석기시대 문화층, 청동기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백제관련 문화층이예요.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다량의 빗살무늬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고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에서는 민무늬토기, 겹아가리토기, 가락바퀴, 돌도끼 등이 출토되었으며 삼국시대 백제관련 문화층에서는 송석문항아리와 이음식돌널무덤, 쇠도끼, 건물지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복원 읍집 | 국가유산청 제공

왕숙천

왕숙천은 대한민국 한강의 제1 지류이며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평리 수원산에서 발원하여 남양주시를 거쳐 구리시 토평동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지방 하천입니다.

문화층

유물이 있어 과거의 문화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지층을 말합니다.

물길을 이용한 사람들



몽촌토성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족국가는 여러 전쟁과 교류를 통해 고대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대국가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혈연으로 이어진 부족국가 중 가장 강한 국가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면서 일반 민중과 지방의 다른 세력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지방의 다른 세력들은 왕권에 따르는 대신 지방의 지배자로서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방 지배세력과 왕이라는 중앙이 결속함으로써 중앙의 관리와 군대가 지방에 파견되는 정치제도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고대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이며 이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해요.

몽촌토성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뻗어 내려온 자연 구릉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든 삼국시대 백제의 토성입니다. 몽촌토성은 백제 초기 서울 지역을 수비하는 토성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한성백제 시기 사람들은 한강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 한강의 가치를 처음으로 알아본 국가는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지리적 여건과 선진 철기문화 및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살았던 **토착민**들을 통합하였고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첫 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했던 한강을 백제 건국신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소서노

소서노는 시조 비류왕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연타발(延陀勃)의 딸이라고 전해집니다. 소서노는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인 우태(優台)와 처음에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었던 우태가 갑작스럽게 죽자 소서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졸본**으로 이동하여 살게 됩니다. 그 뒤 소서노는 난을 피해 도망쳐온 주몽과 혼인하여 고구려 건국을 도와 큰 공을 세웁니다. 소서노가 국가의 기틀을 열고 다지는 데에 큰 공을 세웠기에 주몽은 비류와 온조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친아들 유리가 고구려에 찾아와 왕위를 잇게 되자 소서노는 비류와 온조 두 아들과 함께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류와 온조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 혹은 북부여의 왕인 해부루 왕의 손자인 우태와 연타발의 딸인 소서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전해집니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친아들 유리가 고구려에 찾아와 왕위를 잇게 되었을 때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향하여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따라 나선 신하들이 “생각건대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한강)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려 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한강의 지리적 이점을 말하자 온조는 한강에 도읍을 정하고 십제(十濟)라는 국호를 붙였고 비류는 이에 따르지 않고 **미추홀**(彌鄒忽)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토착민

대대로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백성을 토착민이라 합니다.

졸본사람(졸본)

졸본(卒本) 또는 흘본(忽本)은 고구려 동명성왕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며 도읍로 삼았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현재 중국의 랴오닝성 환런현에 있던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입니다.

미추홀

미추홀(彌鄒忽)은 비류가 오늘날 인천광역시에 세웠던 도시국가이자 인천 지역을 일컫는 옛 지명입니다.

러나 비류의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짠 탓에 사람들이 편하게 살지 못했고 비류가 괴로움으로 목숨을 거두자 비류의 신화와 백성은 다시 온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올 때 즐거이 따라왔다 하여 이후 십제는 국호를 백제(百濟)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동진

동진은 317년부터 420년 까지 존속했던 중국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동진은 진나라로 불렸는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진나라는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원전 206년까지 존재했던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아닌, 중국에 265년~316년간 존재했던 서진 왕조가 멸망한 후, 사마예(司馬懿)에 의해 만들어진 진(晉)의 망명 왕조를 말합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사기는 1145년경에 김부식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입니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일본서기는 일본의 역사서로, 일본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규 역사서입니다.

고사기(古事記)

고사기는 일본의 역사서로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신화와 전설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백제의 개국부터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천도하기 전까지, 즉 기원전 18년부터 457년까지의 시기를 한성백제라고 합니다. 한성백제는 백제의 역사에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로 백제는 한강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한성백제의 사람들은 한강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요?



내륙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한강의 물줄기는 외부와 소통하는 교통로이자 활발한 문화 교류의 장이었어요. 따라서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백제는 처음부터 개방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답니다. 한강의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던 백제는 중국 등의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한반도 중부지역 토착 문화에 맞게 변용함으로써 백제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했고 이를 주변의 다른 나라에 전파했어요. 특히 서해와 맞닿은 한강을 통해 중국의 남조인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였고 백제의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한 일본의 규슈지역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백제는 서해를 횡단하여 인천만을 통해 오가는 방식으로 중국의 산둥 지방과 교류했으며 일본과는 한강(한성)-인천만-남양반도-태안반도-금강하구-변산반도-영산강하구-고흥반도-섬진강하구-쓰시마-규슈 북부-오사카만-야마토로 이어지는 뱃길을 통해 외교를 이어 나갔습니다. 당시 백제는 한학·불교·천문·지리·의학·음악·공예 등 우수한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파하기도 하였는데,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대외관계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백제는 육로가 아닌 한강을 통해 교류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 백제는 한강을 항로로써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어요. 이는 당시에 육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고구려와 적대적인 관계였기에 육로로 교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항해술과 배를 만드는 독자적인 조선술을 발달시켰으며 여러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연안항로, 중국 남조 항로, 일본 항로, 서해 횡단 항로 등이 있었고, 모든 항로는 한강을 통해 백제의 수도인 한성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제의 항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사람에는 누가 있으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라난타

마라난타(摩羅難陀)는 삼국시대 백제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인도의 승려입니다. 마라난타는 384년에 중국 남조의 동진을 거쳐 백제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법성포 전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마라난타는 중국 남조 항로를 통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건강-금강하구-태안반도-인천만으로 이어지는 연안 항해를 통해 한성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류왕은 마라난타가 한성에 도착하자 궁궐 안에 머무르게 하였고 마라난타는 궁중에 머물며 설법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점차 교화되어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백제 불교의 시작이라고 전해집니다.



영광 불갑사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영광 불갑사

영광 불갑사는 384년 시기에 행사존자(行士尊者)가 창건하였다고 하였는데, 행사존자는 마라난타(摩羅難陀)의 다른 이름입니다.



왕인

왕인(王仁)은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삼국시대 백제의 학자입니다. 일본에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전했다고 하며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씨족집단인 서수(書首)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인은 한강에서 아마토로 이어지는 일본 항로를 통해 일본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백제와 일본은 정치적·군사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왕인의 일본 이주는 백제와 일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는 한강의 물길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삼국사기에는 475년 9월, 가을에 고구려 장수왕이 군사 3만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략하고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켰으며 개로왕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군은 다시 고구려의 수도로 회군했지만, 전 병력이 철수한 것이 아니라 한강 유역에 크고 작은 군사시설을 만들고 백제와 신라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고구려는 교통의 요충지인 한강 북쪽 아차산 일대에 보루와 같은 소규모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고, 보루를 통해 남쪽으로 향하는 교통로 확보 및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 보았을 뿐 백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서해로 통하는 물길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한강의 물길을 어떻게 이용하였을까요?**



신라의 경우 551년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한강 상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한강 하류도 차지하게 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현재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동북부를 묶어 한주라고 이름 붙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백제의 왕성이 있었던 몽촌토성 및 풍납토성 일대를 **주치(州治)**로 삼았습니다.

주치(州治)

주치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청 등의 행정관사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한주는 국경과 맞닿은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가 많이 배치되었으며, 또한 중국과 통하는 관문인 당은포가 위치하여 당나라에 파견되는 사신이 출항하거나, 당에서 신라로 들어오는 사절의 최종 기착지였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시기에도 이미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한주에게는 군현의 군사비, 사신접대비, 제사비용 등을 거두거나 분배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이 주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한주에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한강의 물길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기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명문(銘文)기와 파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반월산성, 아차산성, 서울시 암사동, 하남시 등에서 발견된 글씨가 새겨진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에는 “해구(蟹口)”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해구(蟹口)”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고덕천의 입구를 의미하는 말로, 이 기와들이 고덕천 인근의 국가 가마에서 생산되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와에 적힌 “해구(蟹口)”의 앞에는 어떤 지역에서 기와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지명+받았음(受)”이 적혀있습니다. 이는 즉 해구에서 만들어진 기와가 그 지역에 수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와에 “선가(船家)”와 “선우(船宇)”라는 나루터 혹은 포구를 의미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 고덕천의 입구에서 만들어진 기와는 한강 인근에 있던 커다란 나루터를 통해 각 지방으로 운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의 나루터에서는 비단 기와뿐만 아니라 각 관아에서 소요되는 종이, 벼루, 먹, 붓 등의 문구류와 청동제품,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물, 각종 가구 등이 운반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물품의 제작과 구입 비용은 소속 군현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문(銘文)기와

명문기와란 글이 새겨진 기와를 말합니다.

고려는 왜 남경을 설치했을까?

경(京)은 수도를 의미하는 한자어로,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대부분은 하나의 수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려는 기본 수도인 개경(지금의 개성)이외에도 서경(西京), 동경(東京), 남경(南京)이라 불리는 세 개의 수도를 더 두었습니다. 이 중 남경은 현재의 서울 지역에 설치된 수도였습니다. 남경이 처음 설치된 것은 문종 21년(1067년) 시기였어요. 남경의 설치에는 풍수도참설의 영향도 있었지만, 남경지역의 신흥 세력들을 왕권의 지지세력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를 여러 곳에 나누어 둠으로써 행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남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고 같은 목적으로 40년 후인 1104년에 다시 설치되었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남경에서는 어떻게 한강을 이용하였을까요?**

• • •

고려시대 남경의 도성은 북한산 남쪽과 한강 이북의 양주에 설치되었어요. 남경은 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 토지가 평탄했기 때문에 다른 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 부유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경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도로망이 짜였고 주요 지점마다 **역참**이 생겼는데 개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남경의 관할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개경으로 운반되는 세금과 공물은 바다와 강을 통해 운반되었는데 이를 **조운(漕運)**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강은 상류로는 북한강과 남한강, 하류로는 임진강을 만났기 때문에 한강 유역은 조운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충주의 덕흥창, 원주의 흥원창 등의 조창에 모인 곡물과 물품은 조운선에 실려 한강으로 내려와 한강 하류의 광통포(廣通浦)를 거쳐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통해 조운이 발달하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상공업과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고려시대의 숙박소는 주로 원(院)이라고 불렸으며 보통 절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지배 이념이자 종교였던 불교는 상업에 호의적이었고, 직접적으로 사찰이 상업에 뛰어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한강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했으며, 승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무신 정권기 **이규보**가 고향 여주로 향하는 길에 한강가의 사평진에서 “거처하는 백성이 머리를

깎아 절반이 승려이네”라고 한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또한 남경 일대에는 외국인도 거주했다고 전해지는데, 고려의 예종이 남경을 방문했을 때, 거란의 귀화인들이 가무와 연희를 공연하여 왕이 구경했다는 내용이 있어 거란인들이 남경 인구의 일부를 구성하며 생업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高麗史)』 | 1455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남경(南京)에 도착하자, **투화(投化)**하여 남경 안에 흩어져 사는 거란인(契丹人)이 거란의 가무(歌舞)와 **잡희(雜戲)**를 연주하며 **어가(御駕)**를 맞이하였으며, 왕이 어가를 멈추게 하고 관람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강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고려시대 이후로도 한강은 물류와 사람의 이동에 있어서 큰 이득을 제공했습니다. 고려에 이어 새로운 왕조를 개국한 조선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겨 과거 귀족세력의 저항을 피하였으며 인접한 한강을 전국과 이어지는 교통로이자 도성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한강의 수로기능을 활용하여 쌀·배·비단 등의 조세를 옮기고, 배가 드나드는 포구와 나루를 큰 시장으로 발전시켰어요.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서울 일대를 흐르는 한강 권역을 ‘수도 주변을 흐르는 강’이라고 하여 **경강(京江)**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강의 서쪽부터 양화, 용산, 서강, 마포, 노량, 서빙고, 동작, 한강진, 삼전도, 송파, 광진 등은 한강 상업의 주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교통의 요지로 정착한 나루와 포구 주변은 늘 사람이 붐볐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만들어져 신흥 도심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고려사(高麗史)

고려사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투화(投化)

투화란 어떤 국가의 문화나 이념을 좋게 여겨 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희(雜戲)

잡희(雜戲)란 줄타기, 땅재주, 재주넘기, 탈춤 등 민간에서 공연된 여러 놀이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가(御駕)

어가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을 말합니다.

역참

역참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외국 사신 영접, 공공물자 운송 등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통신기관입니다.

조운(漕運)

조운(漕運) 제도는 조선 후기까지 각 지방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곡물이나 비단 등을 지방의 창고로 거두어들인 다음, 배에 실어 강이나 바다를 통해 수도의 창고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규보

이규보는 고려의 문신으로 고려 무인 집권기에 활동한 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규보가 남긴 시와 문장은 고려시대 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동호서호도(東湖西湖圖)

한강의남쪽에서본용산과마포 일대를그린그림입니다.고기잡이 뱃놀이 등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고있는한강의모습을 담고 있습니다.용산포(龍山浦),마포(麻浦),동호(東湖),서호(西湖)라는 지명이표기되어있으며,그위치에는오류가있으나,조선시대상업이발달한나루와포구로서한강의모습을보여줍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의 출납, 각종 행정 사무와 의례(儀禮) 등에 관해 기록한 일기입니다.

마계

마계란 용산에 사는 말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공적인 수송에 응하기 위하여 만든 계모임을 말합니다.

빙호

빙호란 얼음을 채취하는 노동으로 세금을 내는 집들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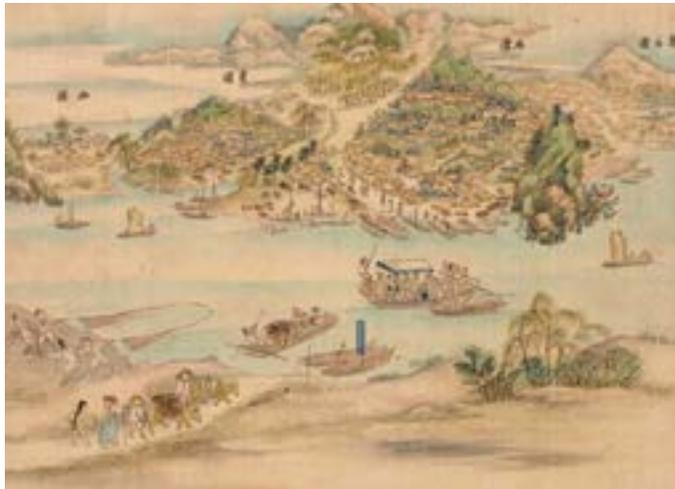
공인

공인은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특권을 가진 상인을 말합니다.

한성부민

한성부민이란 서울인 한양도성과 한양도성외부근방에 살던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나루와 포구는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전달, 물자의 유통,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며 조선시대 서울의 사회와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한강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산수인물도육폭병(山水人物圖六幅屏)》 제1폭 <동호서호도(東湖西湖圖)> | 1904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한강 일대는 수도인 한양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양의 바깥에 속하는 공간으로 취급되었으며, 한양도성 내부에 사는 사람과 한강변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구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양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경민(京民)이라고 하였고 한강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강민(江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마계와 관련한 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민의 일에 강민이 쌀을 내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한성부의 백성을 경민과 강민으로 구분하였고, 정조 6년(1782년)에는 한성부 판윤 정창정이 빙호를 뽑는 일과 강상에서 사적으로 얼음을 떠 판매할 때 가격을 농단하는 폐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민이 강민과 협력해서 폐단을 야기하는데 마치 동서빙고 공인의 예와 같이 한다”고 하며 한성부민을 경민과 강민으로 나누어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민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속해있었습니다. 경강은 조선 전기부터 수로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전함과 병선의 물 위 전투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금군, 마병, 호위군관 등의

군병이 경강에 모여 살았으며 특히 용산, 마포, 서강에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 지역에 군사와 배를 다수 배치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운을 담당하게 하여 직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강에는 국가와 민간 소유의 많은 선박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탓에 한강에는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하역을 담당하는 인부, 선장과 목수, 나루터의 진부, 상업에 종사하던 시전상인, 여객주인, 선상 등의 상인, 어업을 병행하는 농민 등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조선시대 한강은 어떻게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강민의 주요 구성원은 생계를 위한 일용노동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상경한 이 사람들은 강가에 살면서 경강 주변으로 마을을 형성하였고, 화물이나 곡물의 하역작업과 운반에 종사했습니다. 서울로 몰려든 지방의 유이민에게 한강은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강변에 다양한 물자와 사람이 몰려들자 한강 주변에는 시장이 발달하였고 15세기 초부터는 많은 상인이 집결해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강



〈나룻배〉《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 | 김홍도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군

금군은 조선시대 국왕의 친위 군을 의미합니다.

마병

마병은 조선 후기 훈련도감 또는 지방군에 편제된 기병을 말합니다.

호위군관

호위군관은 조선 후기 호위함에 소속되었던 군병으로 왕과 궁궐을 호위하던 군인을 의미합니다.

진부

나루터에서 사람을 건너편으로 건너주던 뱃사공을 말합니다.

시전상인

시전상인은 국가의 일을 돕는 대가로 상품의 독점적 유통권인 금난전권을 보유한 특권상인을 의미합니다.

유이민

유이민이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돌다니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룻배

나룻배는 김홍도의 그림으로 두 척의 배 위에 여러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가득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람들과 가득 실은 짐 등에서 시장으로 가는 정경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동법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입니다.

의 경제권역은 조선 후기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 대신 쌀이나 삼베, 무명 등의 직물로 바치게 하는 **대동법**이 시행되자 조운의 역할이 전보다 중요해지면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힘입어 한양의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강은 상업과 소비의 중심지로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한강의 상인들은 어떻게 부를 쌓았을까요?**

• • •

조선시대 서울 일대 한강변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은 **경강상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경강상인들은 조선 전기부터 해오던 곡물 운수업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조선 초기에 조운선이나 병선(兵船), 관선(官船) 등으로 운반해 오던 정부의 조세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강상인이 독점 운송하게 되는데, 이들의 배는 운송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운반하기 어려운 지역의 세곡도 수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강상인들이 취급한 주요 상품은 쌀, 생선, 소금 등이었어요. 특히 쌀의 경우에는 서울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경강상인의 배를 통해 조달되었어요. 조선시대 서울에서는 법적으로 도성 내 경작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대동법의 도입으로 세곡과 소작료가 현물 납부에서 점차 당시 화폐로 사용되었던 쌀, 포목, 동전 등의 납부로 전환되자 막대한 자본으로 쌀을 미리 사서 저장해 두었던 경강상인은 더욱 큰 이득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강상인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시전상인을 제치고 서울의 상업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장악하여 독점하는 것으로 상업을 주도하였고, 부상대고(富商大賈)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부상대고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유통조직망을 장악한 상인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강상인뿐만 아니라 개성의 송상(松商), 평양의 유상(柳商),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내상(萊商)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시전상인들 또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독점이었지만, 부상대고의 독점의 성격은 크게 달랐어요. 부상대고의 독점에 생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단계를 모두 장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상대고의 독점은 조직력과 자본력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또 시전상인의 독점은 경쟁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이었지만 부상대고의 독점은 같은 종류를 취급하는 다른 사상들과의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품유통의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 측면에서 부상대고의 독점은 시전상인에 비해 우월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의 모습 | 1907년 |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경강상인에는 포구에 도착한 선상이나 뱃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던 여객주인, **조세곡** 운송을 담당한 경강선인, 선박을 이용해 유통업을 하였던 경강선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강상인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여러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곡식에 물을 타 양을 부풀리는 것으로 차액을 빼돌리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횡령하기도 하고, 곡물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곡물을 판매하고 곡물 가격이 싼 지역에서 다시 사들여 경강의 창고에 납부하거나, 세곡을 빼돌리고 배를 침몰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경강선인들은 선운업에서 축적한 부를 토대로 조선업에 진출하였고, **퇴병선**이나 **진선**을 사들여 개조하거나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강선상들은 경강에 모인 쌀과 곡식의 출하를 늦춰 쌀값을 폭등시킨 뒤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지방에 흉년이 들어 품귀 상태가 되면 지방에서 구입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기 위해 비축해두었던 쌀, 강상미를 지방으로 출하하여 이득을 얻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하였어요. 이러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정종근(鄭宗根)은 쌀이 있으면서도 팔지 않았으므로 할말이 없다고 공초를 바치었습니다. 도성 안의 수많은 백성들의 집에서 밥을 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난민**의 변고는 그의 가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래 **싸전** 사람인 이동현(李東顯)은 크고 작은 **되**를 혼동(混同)해 사용했기 때문에 포도청에서 곤장을 맞아서 길거리에서 떠들썩하게 소문이 퍼졌을 뿐 아니라, 그 가켓방에 증거를 세웠으니, 다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잡곡가게 사람인 최봉려(崔鳳麗)는 그가 쌀에 물을 섞은 흔적을 알고서도 그대로 숨겼으며, 9석을 지금도 쌓아두고 있다고 하였으니, 굳색하게 피하려고 꾸며낸 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김재순·정종근은 바로 이 난동을 일으키게 한 장본이어서 법조(法曹)에서 신문하게 하였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순조 33년 4월 10일

조세곡

조세곡이란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곡물을 말합니다.

퇴병선

퇴병선은 과거 병선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선박을 말합니다.

진선

진선은 나루터에서 사람이나 짐 등이 이동할 때 사용되는 배를 말합니다.

난민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싸전

싸전은 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를 말해요. 19세기 문헌에서 '싸전'으로 나타나며 이 말은 '쌀+塵'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유어와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되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해요.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1833년, 마포의 동막 마을에 살았던 김재순과 정종근이라는 경강상인은 전년에 흉수로 흉년이 들자 값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쌀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성 안의 쌀과 곡식을 파는 미곡상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쌀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군가 쌀을 매점 해 두고 팔지 않는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도는 가운데 쌀값이 급등하자 쌀을 구하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은 쌀가게와 한강변 쌀창고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쌀 폭동은 쌀을 매점했던 김재순을 비롯하여 이를 막지 못한 관리들이 처형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경강상인이 미곡 가게를 운영하고 상인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쌀값을 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상인이 아니었던 강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한강변에 살았던 강민들은 일용노동자나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강민들은 사회의 주류가 아닌 주변부의 사람들로 인식되었고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민을 차별했다는 내용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동강은 인가의 성대함이 서강에 미치지 못하고, 서강의 인가는 마포만큼 조밀한 곳이 없다. 강인(江人)들은 날마다 이익을 꾀하기를 일삼기 때문에 전혀 선한 풍속이 없다. 경인(京人)들은 이들을 천시하여 '강가에 사는 놈(江耆)'이라 부르고 '강가에 사는 사람(江人)'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일몽고(一夢稿)』, 이규상

또한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강가에 사는 강민들은 도성에 사는 백성보다 빈곤하였기 때문에 **요역(徭役)**에 있어서도 도성 내 경민들과 차

요역(徭役)

요역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에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던 것을 말합니다.

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성록(日省錄)』에는 강민과 경민의 요역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강민은 빈곤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토목공사 등의 요역에서 제외하고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는 빙역을 담당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坊役)이란 종묘와 사직 각궁(各宮)과 원(園)의 눈을 쓸어내고 잡초를 뽑아 없애고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고 모래 독을 쌓는 일 따위인데 얼음을 뜨는 일에 비해 열 배나 많습니다. 강 인근의 **빈한**한 백성들이 부역을 다니기 위해 10리를 오간다면 하루치 벌이를 잃을 것이고, 하루치 벌이를 잃으면 3일치 먹거리를 잃게 될 것이니, 백성을 위해 부역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민은 방역을 지고 강민은 방역을 지는 것이 본래 오래된 법식입니다.

- 『일성록』 정조 10월 정월 22일

이처럼 강민은 도성의 백성들보다 고단한 삶을 겪었으며, 조정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은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승정원일기』 순조 9년 8월에는 '강민이 자생하는 길은 미곡 운송 하나 뿐인데 이마저 경민에게 빼앗겨 버리니 경민은 부익부하고 강민은 빈익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는 대목이 있으며, 철종 4월 21일에는 서강쪽 민가가 화재로 집을 잃자 **원홀전(元恤典)**을 거행하고 집을 지어주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887년 12월에는 고종이 포구의 구실이나 이유 없는 **무명잡세(無名雜稅)**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명했는데 이 또한 강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러나 1905년 고종시기에도 강 연안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한 형편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을 보아 대한제국기까지도 강민들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것 없이 서울의 주변부에서 고단한 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섬의 배목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한강에는 일용노동자나 상인 뿐 아니라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과거, 한강의

빈한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하다는 뜻이에요.

원홀전(元恤典)

원홀전이란 나라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계를 잃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는 곡식을 말합니다.

무명잡세(無名雜稅)

정당한 세목(稅目)을 붙이지 않고 받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을 말해요.

마포나루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밤섬은 조선 후기에는 전국 최대의 조선소로 이름 높은 곳이었어요. 특히, 주변의 나무와 포구들이 발달했던 18세기에는 한강에 떠다니는 거의 모든 배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선박 관련 종합 공장의 역할을 했답니다. 밤섬의 배 목수들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았는데 전체 100여 가구 가운데 50여 가구가 배를 짓는데 종사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한강 밤섬의 배 목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밤섬의 목수 | 1960년대 추정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밤섬 배목수들의 기술은 단양이나 영월 등의 한강 상류는 물론 한강 하류를 넘어 서해까지 알려질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배목수들은 밤섬에서 뿐만 아니라 배를 만들고 고치기 위해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먼 곳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잦았어요. 당시 밤섬 배목수들이 만들었던 배는 10여 종이 넘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길이가 15~18m에 달하는 짬판이었어요. 짬판은 사람에서 물건까지 가리는 것 없이 모두 실었던 짐을 싣는 배를 말해요. 이 외에도 얹이 뾰족하고 날씬한 것이 특징인 '나가사키'라는 약 15m의 조깃배와 한강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늘씬하게 만든 나무못배인 12m 정도의 '늘배'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밤섬 마을의 주요 생업이었던 배 관련 목공기술은 세대를 이어 전수되어왔으며 배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작업 역시 가족과 친·인척간에 이루어졌어요. 이는 한강 수운이라는 사회·경제적 체계가 불러온 특별한 업종과 직업이었답니다.

밤섬의 목수

한강 개발로 폭파되기 이전의 밤섬은 현재보다 섬의 지대가 높았고,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밤섬 사람들은 조선업에 주로 종사하였는데, 한강을 떠다녔던 배 중 95%가 밤섬에서 만들어졌을 만큼 목조선물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강 최초의 민간 해운기업을 운영한 사람은 누구일까?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한강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이 늘어남에 따라 대외무역이 확대되었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 노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조선은 초기 해운업을 정부 직영의 형태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조선 정부는 1885년에 **전운국**(轉運局)을 설치하고 이듬해 해룡호(海龍號)·조양호(朝陽號)·광제호(廣濟號) 등의 증기선을 구입하여 우선 세곡 운송을 전담하게 했어요. 그러나 전운국에 의한 관영 해운업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폐쇄적 운송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전운국은 1893년, 청나라의 최초의 근대 기업인인 초상국(招商局)을 모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해운기업인 이운사(利運社)를 설립했어요. 그렇다면 **한강 최초의 민간 해운기업, 이운사를 운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

1893년에 설립된 이운사는 **민영준, 정병하, 우경선** 등의 발의로 전운국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해운기업이었어요. 창설 당시, 사장은 민영준, 부사장은 정병하와 **조필영**, 사무관은 우경선이었으며 회사는 내무부에 소속되어 전운국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운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선은 창룡호(蒼龍號), 현익호(顯益號), 이운호(利運號), 경제호(慶濟號), 한양호(漢陽號) 등 총 5척이었어요. 이운사는 이 배들을 이용하여 전운국이 수행했던 세곡의 운송뿐만 아니라 개인 화물과 보통 여객의 운송을 취급했으며 국내는 물론 청나라와 러시아 등의 해외로도 운항했습니다. 그러나 이운사의 선박은 일정표 위반이나 불친절한 대응 등 부실하게 운영되어 승객과 화물이 줄어들었고 일본 상선과의 경쟁에서도 밀려 수익이 감소했어요. 또한, 정부의 관용물이나 관리의 개인 화물을 거의 대가를 받지 않고 수송하고, 배송을 통해 수익이 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던 이운사는 **탁지아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탁지아문은 인천항 상인들을 참여시켜 이운사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일본 해운회사 중 한 곳이 돈을 조선에 빌려주는 대가로 이운사의 운영권과 기선을 받게 됩니다. 그 뒤 일본 해운 회사는 연안 항해의 독점권을 장악하고

전운국

전운국은 조선 말기, 세곡 운반을 주관하던 부서입니다. 전세와 대동미 등 세곡의 징수와 운송, 수납을 관리하기 위해 1883년에 설치된 부서입니다.

민영준

민영휘로도 불리며 일제강점기 병조판서, 이조판서, 한일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관료입니다.

정병하

개항기 밀양부사, 내장원장, 농상공부협판 등을 역임한 관리입니다.

우경선

개항기 대한제국의 관료이자, 이운사의 사무관이었습니다.

조필영

개항기에 대구판관, 호남전운사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탁지아문

조선 말에 호조의 업무를 계승하여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을 맡았습니다.

한강을 향유한 사람들



민영휘 초상 | 1886년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모든 선운업자는 이운사의 인준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일본이 힘을 잃고 러시아가 득세하게 되자, 조선정부는 일본 해운 회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운영권과 기선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운사는 총세무사였던 브라운(J. McLeavy Brown)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룡호(海龍號)를 우경선에게 매각하였고 현익호(顯益號)와 창룡호(蒼龍號)의 운항권을 **세창양행**에 위임했어요. 그러다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1900년 6월, 정부는 브라운에게 주었던 기선 관리권을 회수하고 모든 기선을 민간 해운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해운업은 본격적으로 민간 주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빙고망도성도(西氷庫望都城圖)〉 | 정선 | 1741~1759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강은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지만, 비단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한강 인근에 터를 잡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문인 관료들은 한강을 주제로 다양한 시와 그림을 남겼고, 한강의 풍경을 즐기기 위하여 한강변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통 묵객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먹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한강의 풍경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예로부터 한강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어요. 따라서 수많은 묵객은 한강에 모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였고 서로의 학문과 예술을 나누고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명한 묵객은 누구였으며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서빙고망도성도

(西氷庫望都城圖)

〈서빙고망도성도〉는 서빙고에서 도성, 즉 서울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지닌 그림입니다. 해당 그림은 동작동 서쪽 동작진 버드나무 숲 일부도 표현해 한강의 동작나무 양쪽 강가의 풍광을 보여줌과 동시에 근경으로 둔지산 기슭의 서빙고 일대를 섬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세창양행

1884년에 독일 마이어 상사(Meyer 商社)의 제물포 지점으로 설립된 무역상사로 독일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위해 만든 기업입니다.

원경

원경은 사진이나 그림에서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찍히거나 그려진 대상을 말합니다



마포나루 | 1880년대 | 국립관세박물관 소장

유산록(遊山錄)

유산록이란 여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겪은 것을 사실적으로 읊은 기행가사로 조선시대 산의 절경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서강팔경(西江八景)

서강이란 원효대교의 서쪽 일대의 한강을 말하는데 마포, 여의도, 양화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서강팔경이란 서쪽 일대 한강의 8가지 아름다운 풍광을 말합니다.

용산팔경(龍山八景)

용산 일대를 흐르는 강을 남호, 혹은 용호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동작, 노량, 용산 등이 포함됩니다. 용산 팔경이란 용산강 일대 한강의 8가지 아름다운 풍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龍虎霽月 용산강에 비 개인 날 저녁에 뜬 달 광경
- 麻浦歸帆 삼개나루로 돌아오는 수많은 돛단배의 경치
- 放鶴漁火 방학교 부근의 셋강에서 밤낚시 하는 등불 원경
- 栗島明沙 밤섬 주변에 쌓인 깨끗한 백사장의 원경
- 籠岩暮煙 농바위 부근의 많은 인가에서 저녁 짓는 연기 오르는 광경
- 牛山牧笛 와우산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목동들의 피리소리
- 楊津落照 양화진 강 하늘에 붉게 물든 낙조와 노을의 장엄한 경치
- 冠岳晴嵐 관악산에 맑게 개인 날 어른거리며 오르는 아지랑이의 신비로운 원경

조선시대의 목객은 전국의 명소를 유람하여 지은 **유산록(遊山錄)**을 통해 절경에 대한 감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은 ‘**서강팔경(西江八景)**’이나 ‘**용산팔경(龍山八景)**’ 등으로 열거될 만큼 풍광이 아름다운 명소가 많아 수많은 목객이 머물며 글과 그림으로 그 경치를 예찬했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한강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이들은 대표적으로 서거정과 서유구가 있습니다. 서거정은 한양의 명소 10곳을 말하는 **한도십영(漢都十詠)**을 주제로 삼아 연작 시를 지었습니다. **한도십영(漢都十詠)** 안에는 한강을 주제로 한 6개의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유구는 지금의 밤섬 근처인 농암(籠巖)에 살았는데 그의 ‘**한강팔경(漢江八景)**’은 그곳에서 바라본 강남과 강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강팔경 서유구

서유구(徐有榘)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농정가(農政家)이자 저술가입니다. 1790년(정조 14년)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1792년 **대교(待敎)**·**검열**을 지냈으며 실학에 조예가 깊었고, 백가서(百家書)에 통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서유구는 문장가이기도 했는데 그의 시문집인 **풍석전집(楓石全集)**에 한강의 아름다운 명소를 표현한 한강팔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풍석전집』 | 한국고전번역원 소장

集芙蓉江遠近之勝。
指計有八。
其一 天柱朶雲。
其二 黔丹紋霞。
其三 栗嶼魚罾。
其四 蔓川鱗燈。
其五 烏灘疊檣。
其六 鷺梁遙艇。
其七 榭園錦穀。
其八 麥坪玉屑

부용강 원근의 빼어난 곳을 손으로 꼽자면 모두 여덟이 있다. 첫 번째는 천주타운이요, 두 번째는 검단문하요, 세 번째는 울서어증이요, 네 번째는 만천해등이요, 다섯 번째는 오탄첩장이요, 여섯 번째는 노량요정이요, 일곱째는 곡원금곡이요, 여덟 째는 맥평옥설이다.

한강팔경은 관악산 봉우리에 휘날어진 구름을 노래한 천주타운(天柱朶雲), 검단산의 노을을 예찬한 검단문하(黔丹紋霞), 밤섬의 고기잡이를 이야기한 울서어증(栗嶼魚罾), 밤섬을 휘감고 도는 한강의 지류인 만초천에서의 게잡이 불빛을 묘사한 만천해등(蔓川鱗燈), 밤섬 하루의 여울이었던 오탄에 정박한 배들을 보고 쓴 오탄첩장(烏灘疊檣), 노랑진의 흔들리는 조각배를 노래한 노량요정(露梁遙艇), 마포의 떡갈나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곡원금곡(榭園錦穀), 보리 심은 들판에 떨어지는 싸락눈을 묘사한 맥평옥설(麥坪玉屑)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초계문신(抄啓文臣)

조선 정조 이후부터 37세 이하의 젊고 재능있는 문신들을 규장각에서 교육시키고 40세가 되면 졸업시키는 것을 초계문신제도라고 하며,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를 초계문신이라 하였습니다.

대교(待敎)

대교란 조선시대 왕의 측근에서 군신의 대화와 거동, 정치활동을 기록하고 역사 책을 모아둔 서고를 관리하는 관직입니다.

검열

검열이란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아보는 일을 하고,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하는 관직입니다.

풍석전집(楓石全集)

조선 후기의 문신·실학자, 서유구의 다양한 글을 수록한 문집입니다. 1983년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 6권,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 12권, 『누판고(鑪板稿)』 7권 등을 합하여 보경문화사(保景文化社)에서 영인하였으며 이를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제천완월(濟川翫月)

제천정에서 달을 구경하는 풍경을 읊은 시입니다.

양화담설(楊花踏雪)

양화나루에서 눈을 밟는 풍경을 묘사한 시입니다.

목역상화(木覓賞花)

현재는 남산이라고 불리는 목역산에서 꽃을 구경하는 풍경을 그린 시입니다.

천교심방(箭郊尋芳)

살곶이벌이라고 불리는 독섬에서 봄놀이를 하는 풍경을 그린 시입니다.

마포범주(麻浦泛舟)

마포나루에서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하는 풍경을 그린 시입니다.

입석조어(立石釣魚)

입석조어는 성동구에 있었던 포구인 입석포에서 낚시를 하는 풍경을 그린 시입니다.

은거지

은거지란 정치와 돈벌이 등 세상을 피해 숨어서 사는 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거정(徐居正)은 조선 문종, 세조, 성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입니다. 시문을 비롯한 문장과 글에도 뛰어났으며, 시화(詩話)의 백미인 『동문선(同文選)』과 설화집인 『필원잡기(筆苑雜記)』 등을 남겨, 신라 이래 조선 초에 이르는 시문과 산문 문학을 집성했습니다. 한도십영은 『동문선(同文選)』 안에 실려있는데 그 중 제천완월(濟川翫月), 양화담설(楊花踏雪), 목역상화(木覓賞花), 천교심방(箭郊尋芳), 마포범주(麻浦泛舟), 입석조어(立石釣魚)가 한강 인근의 명소를 그린 시였습니다.

溪邊怪石如人立	시냇가의 괴석이 사람처럼 서 있으니
秋水玲瓏照寒碧	영롱한 가을 물이 차고 푸르게 비치네
把釣歸來籍綠蕪	낚시대 잡고 돌아와 거친 조개풀 깔고 앉으니
百尺銀絲金鯉躍	은실 백자에 금잉어가 뛰어 오르네
細斫爲膾燻爲羹	잘게 썰어 회를 뜨고 삶아서 국을 끓이니
沙頭屢臥雙玉瓶	모래땅 근처에 쌍옥병이 여러번 넘어지네.
醉來鼓脚歌滄浪	취기가 올라 다리를 치며 검푸른 물결을 노래하니
不用萬古麒麟名	만고의 기린각 이름이 쓸모 없구나

- 『한도십영 중 10(漢都十詠 中 10)』, 선바위에서의 낚시 (입석조어, 立石釣魚), 서거정

또한 조선시대 한강은 도성과 가장 가까운 은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밀려나거나 물러난 사대부들 중 몇몇은 한강 인근에 별서를 짓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지함입니다. 이지함은 마포나루 인근 언덕에 흙으로 만든 움막을 짓고 청빈하게 살아 토정(土亭)이라는 호가 붙은 양반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이지함은 명종 시기 활동하였던 조선 중기의 학자입니다. 고려시대 말기 대학자였던 이색의 후손으로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처가의 역모죄로 멸문을 당하고 친한 친구마저 당쟁으로 죽자 세상을 등지고 전국을 유람했습니다. 갓 대신 술을 쓰고, 나막신을 신고 다녔으며, 지

팡이를 짓고 잠을 자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도 멀쩡했기 때문에 기인(奇人)으로 취급받았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오랜 유랑을 끝내고 마포에 정착한 그는 바다와 갯벌로 배를 끌고 나가 고기를 잡아들였고 이것을 팔아 쌀과 보리를 산 후, 함께 배에 올랐던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나누어주고 아녀자들과 아이들에게도 남김없이 베풀었어요. 또한, 의술에 밝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의 병을 무료로 고쳐주었고 유랑하면서 배운 풍수와 역술로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점도 쳐주었습니다. 이지함이 마포에 정착해 어부와 상인으로 생활한 것은 상업이야말로 조선을 변화시킬 주체가 될 것을 예감해서라고 전해집니다.



마포나루 도선전경 | 1920년대 추정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선시대의 목객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한강을 담았는데, 한강을 화폭에 담은 대표적인 화가로는 한양 근교의 풍광을 담은 김윤겸,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및 양천팔경첩(陽川八景帖)을 그린 정선,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정수영 등이 있습니다.

마포나루 도선전경

마포는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이자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충청전라경상도의 곡물과 건어물, 농산물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경교명승첩은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이 한강변의 명승지를 그린 진경산수화 시화첩입니다.

양천팔경첩(陽川八景帖)

양천팔경첩은 정선이 양천 현감을 할 때 주위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모은 화첩입니다.

송파환도(松坡喚渡)

송파진(松坡津)은 한강에 있는 나루터 중 하나로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이 그림은 강을 건너기 위해 건너편 언덕에서 배를 부르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부름에 거룻배가 강이 중간쯤에 와 있는 듯 하며 강 건너에 몇 척의 거룻배와 촌락이 보이고 멀리에는 남한산이 보입니다.



김윤겸

김윤겸은 김창업(金昌業)의 서자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김윤겸은 정선(鄭敼)이 이룬 진경산수화풍(眞景山水畵風)을 이어받아 강희언(姜熙彦), 김응환(金應煥) 등과 함께 정선파(鄭敼派)를 형성하였으며 후기에는 정선이나 정선파 화가들의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화풍을 갖춘 화가로 평가됩니다. 김윤겸은 금강산, 한양 근교, 단양, 경상도 등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들을 여행하면서 진경산수 제작에 몰두하였습니다. 주로 바다, 바위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소재로한 그림이 많으며, 실경을 대담하게 생략한 근대적인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을 그린 김윤겸의 작품으로는 송파환도(松坡喚渡)가 있습니다.



송파환도 | 김윤겸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

진경산수화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새로운 화풍으로, 화보나 다른 그림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천을 직접 답사하고 그린 실경산수화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기록화의 성격을 지닌 이전 시기의 실경산수화와는 달리, 산천초목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회화적 재구성을 통하여 경관에서 받은 감흥과 정취를 감동적으로 구현했으며 우리 산천의 형태에 어울리는 필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정선

정선은 중국 명승지를 상상하여 그리던 전통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로 17~18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자연의 특성을 깊이 관찰한 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정선의 화법은 강희언, 김윤겸, 최북, 김홍도, 김석신 등 당대 선비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정선은 65세에 지금의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를 관리하는 현령으로 부임했는데 이후,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비롯해 미사리 인근에서 아차산을 배경으로 하는 압구정의 경관, 마포, 동작진 등 한강 일대 수려한 풍광들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그린 그림들은 『양천팔경첩(陽川八景帖)』과 1741년에 완성한 2권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3점의 그림이 수록

된 경교명승첩은 우리나라 고유의 산수화 양식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이자 조선 후기 서울과 한강 유역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2017년 대한민국 보물 제195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개화사(開花寺)〉〈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 정선 | 1741~1759년 | 간송미술관 소장



정수영

정수영은 조선 초기의 문신 정인지(鄭麟趾)의 후손으로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정상기(鄭尙驥)의 증손자입니다. 정수영은 선비화가로서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지리학의 명문이었던 집안의 전통을 따라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다니거나 여행을 하며 사·서·화(詩書畵)에 몰두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정수영은 주로 산수화를 그렸으나, 꽃과 새를 주제로한 화조도(花鳥圖)와 물고기나 게 따위의 물에 사는 동물을 그린 어해도(魚蟹圖) 등 다

개화사(開花寺)

개화사는 강서구 개화동 개화산 해발 126m에 위치한 사찰로서, 현재는 약사사로 불리고 있어요. 정선은 화면 전체에 개화산의 수려한 봉우리를 중첩했고 산 중턱 구름에 개화사의 법당을 그려 넣었으며 하단에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그 위를 노니는 쌍돛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강·임강유람사경도권
(漢江臨江遊覽寫景圖卷)

정수영이 1796~1797년에 걸쳐 한강과 임진강 일대를 유람하면서 본 경치를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한강·임강유람사경도권(漢江臨江遊覽寫景圖卷) | 1797년
정수영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강변의
풍경을 그린
풍속도

한강 주변의 풍속을 그린 사람에는
누가 있었을까?

대쾌도(大快圖)

〈대쾌도〉는 씨름과 택견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놀이를 통하여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도입니다.



〈대쾌도(大快圖)〉 | 신윤복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풍속화는 일반 백성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다룬 그림을 말해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계층이 늘어나자 궁중 수요의 풍속화와 민간 수요의 풍속화가 함께 발달했습니다. 풍속화는 진경산수화와 더불어 조선 후기 회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회화양식이예요. 일반 백성들의 삶을 담은 민간 풍속화는 조선 초기와 중기의 각종 **계회도**(契會圖)를 비롯한 기록화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처음에는 하층민 생활의 상징인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수준에서 윤두서와 조영석 등 사대부 화가의 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속화**(俗畵)라고도 불리던 풍속화는 18세기 후반 직업화가인 화원들에 와서야 비로소 그 결실을 맺고 김홍도(金弘道), 신윤복(申潤福), 김득신(金得臣) 등 **도화서 화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절정을 맞게 됩니다. 양반만을 대상으로 기득권층을 위해서 그려진 이전 시대의 계회도와는 달리 이들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어요.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 후기의 일반 백성들이 그림 속 주인공이었으며, 초가집과



〈벼타작〉(단원풍속도첩) | 김홍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계회도(契會圖)

계회도란 사대부나 문인들의 친목 모임 풍경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속화(俗畵)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를 속화(俗畵)라는 명칭으로 불렀어요. 속화란, 원래 문인화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저속한 그림이라는 뜻인데,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 또는 민화를 의미하는 분류개념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아한 세계를 숭상하고 통속세계를 푸대접한 것이 대세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통속세계까지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서민풍속화가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속화의 의미가 변화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도화서 화원

도화서 화원은 국가에 소속되어 왕실의 행사 등을 그림으로 남기던 직업화가를 말합니다.

단원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단원풍속도첩》은 《단원풍속화첩(檀園風俗畵帖)》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의 화가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25점을 모아놓은 화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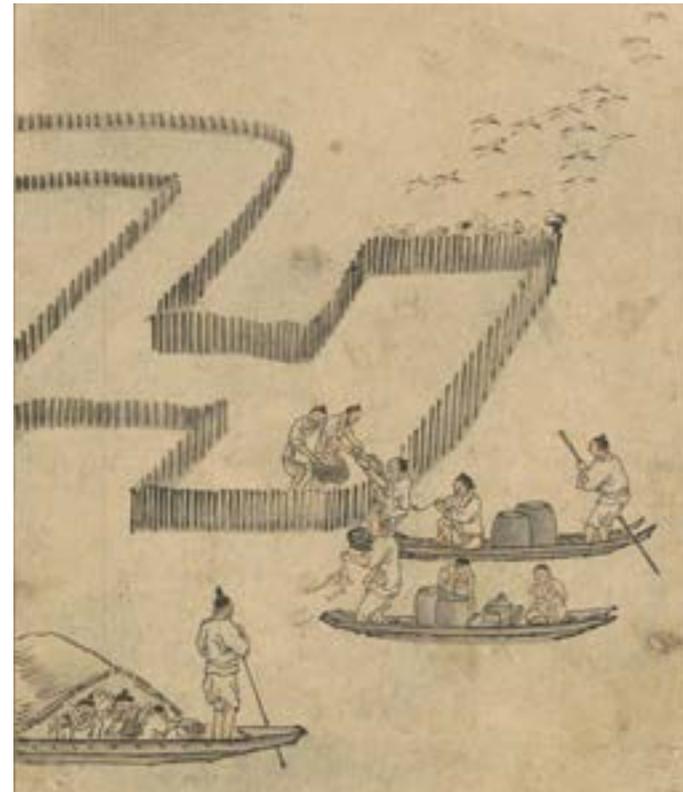
논밭 및 대장간이 그 주인공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조선 후기 생활 주변에서 찾은 재미있는 소재를 간결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도 속에 익살스럽게 승화시킨 것이 특징인 풍속화는 백성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한강 인근의 생활상을 화폭에 담기도 했어요. 특히 한강에서의 백성들의 생활상을 화폭에 담은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와 유윤홍이 있습니다.



주막 | 김홍도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는 정조 때 도화서의 화원으로 스승은 강세황이며, 20세 이전에 화원이 되어 20대 초반에는 이미 당대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합니다. 산수화, 풍속화에서 큰 명성을 얻은 화가지만, 고사인물화 및 신선도, 화조화, 불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화가입니다. 김홍도는 《단원풍속도첩》에 한강의 풍광을 그린 〈고기잡이 배〉, 사람과 집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나룻배〉와 같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고기잡이 배〉에는 대나무밭이 둘러친 어장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내는 광경을 담고 있어요. 고기떼를 따라 물새들이 날아들고 독을 실은 배 가운데는 솔까지 걸려 있어 풍성한 어장의 분위기를 실감케 합니다. 배 안에 독을 싣고 직접 와서 생선을 받아 운반하는 광경을 그린 것으로 보아 한강변 중 마포의 풍경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어요.



〈고기잡이 배〉〈단원풍속도첩〉 | 김홍도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윤홍(劉運弘)은 조선 말기 도화서의 화원으로 산수인물도를 대표적으로 그렸으나, 화조도와 풍속화도 남아있어요. 유윤홍의 풍속화는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나, 신윤복의 화풍도 엿보입니다. 그의 풍속화 중에는 〈세곡을 운반하는 배〉가 유명한데, 이 작품은 힘차게 일하는 뱃사람들과 물살을 가르며 지방의 세곡을 실어나르는 조운선, 그리고 평온한 주변의 작은 배들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이는 한강을 통해 조운선이 드나들었던 풍경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세곡을 운반하는 배

유운홍이 그린 풍속화로, 지방의 세곡을 실어나르는 조운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속 조운선은 돛이 두개 달려있는 쌍돛배로 당시 많은 조운선들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배에는 밭 디딜 틈 없이 많은 곡물이 실려 있는데, 실제로 조운선은 1천석의 쌀과 곡식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곡을 운반하는 배〉 | 유운홍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참고문헌

-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사” - 서울역사편찬원(1985)
-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의 젓줄, 한강” - 국립민속박물관(200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의 어제와 오늘” - 서울역사편찬원(200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2008)
- 한국학중앙연구원, “테마로 보는 미술” - 한국학중앙연구원(2011)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1” - 국립민속박물관(2012)
-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인물열전” - 한성백제박물관(2014)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2천년사 신라의 삼국통일과 한주” - 서울역사편찬원(2015)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2천년사 고려시대 사회 경제와 남경” - 서울역사편찬원(2015)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기획연구1,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7)
-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8)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도시계획사 제3권” - 서울역사편찬원(2021)
- 서울역사박물관, “모래섬 비행장 빌딩숲 여의도 전시 도록” - 서울역사박물관(2021)
-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gangofficial>
-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홈페이지 - <https://hangang.seoul.go.kr>
-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 <https://archives.seoul.go.kr/>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

02

한강을 오고간 사람들

01 한강을 여행한 사람들

02 한강에서 한강변으로



01

한강을 여행한 사람들



한강 나루터 | 1930년대 추정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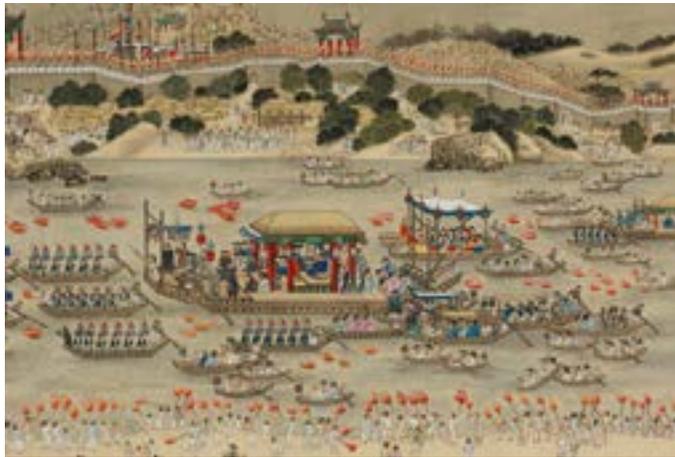
한강은 과거부터 교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관광, 연구·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강을 여행했습니다. 전근대 한강은 주로 관광의 장소로서 각광받았고, 근현대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강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한강 인근에 비행장 등의 운송 관련 기반 시설도 건설되어 국내·외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강 나루터

남호 일대인 용산 한강 하안의 풍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한 나룻배들의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강을 유람한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전역을 잇는 물길로 이용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당시 백제는 서해와 이어져 손쉽게 바다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한강의 물길을 활용하여 중국 및 일본 등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고, 조선시대에는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전국의 세금과 물자를 한양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러한 한강의 면모는 외교 혹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경제적 이득보다 여행이나 유람을 위해 한강을 찾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한강을 통해 여행과 유람을 즐긴 사람들은 누가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한강을 즐겼을까요?



〈선유도〉(평안감사향연도(平安監司饗宴圖)) | 김홍도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인들의 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승지였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서울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도 한강이었으며 특히, 제천정, 잠두봉, 망원정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에게 아름다운 한강은 최고의 접대 공간이었고 한강 유람은 국가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외교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사신들과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길 때는 정자선(亭子船)을 탔는데 이 배는 60여 명 이상 탈 수 있는 호화로운 배였어요.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한강 유람에는 조선의 부원군, 정승, 관료들도 참여하였으며, 수많은 기녀와 악공을 동원한 풍류 넘치는 유람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조선 초기에 방문했던 **진둔** 등의 중국 명나라 사신은 한강 유람을 비롯한 융숭한 환대에 깊은 감명을 받

아 당시 수양대군이던 세조가 조선의 왕으로 등극할 때 명나라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1464년 명나라 사신이었던 김식은 한강 뱃놀이를 하며 제천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각 머리에서 노래하고 피리를 부니 훈풍이 일고
 누각 밖의 꽃가지는 술에 비치어 붉은 빛이네
 구름 그림자 물결 빛은 위아래가 다 하늘이요
 흰 모래 푸른 풀은 언덕의 동서로 널려 있다
 오대산의 옛 길은 긴 봄날인데
 백제의 유허지에 나뭇가지 텅 비었구나
 취한뒤 난간에 기대어 봄별을 바라보니
 이몸은 수정궁에 있는 듯 하구나
 - 『황화집(皇華集)』, 한강루에 올라 취한 나머지 글을 짓다, 김식

그 외에 한강을 통한 유람에 관심이 있던 사람으로는 앞서 언급된 화가 '정수영'과 '한진호'가 있습니다. 정수영은 임진강과 한강 일대를 유람하면서 그린 「한강·임강유람사경도권(漢江臨江遊覽寫景圖卷)」을 남겼으며 한진호는 남한강 주변에 대한 기행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진호는 1823년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시작한 조선 후기의 문신입니다. 한진호는 급제하기 전, 과거시험에 한 번 낙방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남한강 주변을 여행하고 관련 경험을 기행문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도담행정기(島潭行程記)』입니다. 『도담행정기(島潭行程記)』에는 한진호가 1823년 4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독섬에서 단양에 위치한 도담(島潭)까지 기행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주변의 풍경 뿐 아니라 강가에 있던 촌락의 생활양식이나 배를 모는 방법 등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항기에 한강을 여행한 외국인들은 누가 있었을까?

개항 이후, 서울이 개시장(開市場)이 되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와, 다시 한강을 통해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했어요. 그렇다면, 한강을 통해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은 누구였을까요?

평안감사향연도

평안감사향연도는 김홍도의 그림으로 대동강에서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조선시대 뱃놀이와 정자선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평안감사가 탄 배를 중심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 및 관선(官船)이 늘어서 있고 뒤로는 연회자들이 탄 배, 음식을 준비하는 배, 사대부나 아전들이 탄 작은 배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진둔

진둔은 단종 때, 조선을 방문하였던 명나라의 사신입니다.

한국 중부권 스케치 지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저록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중부권 지도입니다. 지도에는 개항장이었던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중부권 스케치 지도 | 19세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모닝 캄

(THE MORNING CALM)

『모닝 캄』은 1890년부터 1939년까지 영국 성공회에서 발간한 종교잡지입니다. 영국 런던을 발간지로 하여 영국 성공회의 조선 선교 상황과 조선에 대한 정보를 영국에 알리는 정보 지역할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외교

줄다리기 외교란 대립관계에 있는 두 나라 또는 그 나라들의 세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말합니다.

제중원

1885년 개원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으로 광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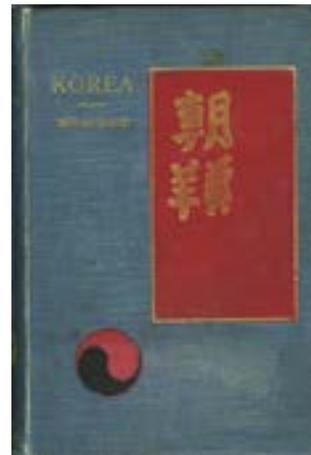
개항 이후, 서울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방문이 증가했어요. 그들의 직업은 사업가, 여행가, 종교인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본 조선의 모습은 그들의 목적과 관심도 및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 정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였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한강을 통해 조선을 탐험하였으며 그때 겪은 체험과 일화를 『조선과 그 이웃들 (Korea and her neighbors)』이라는 책으로 발간했어요. 또, 조선 성공회 초대 주교였던 코프 주교(The Rt. Reverend Charles John Corfe)와 동료들은 종교잡지인 『모닝 캄(THE MORNING CALM)』에 조선에서의 선교 상황과 강화, 마포 등 당시 한강변의 생활상을 기고했지요, 이 외에도 선교사이자 의사였으며 외교관이기도 했던 미국인 알렌(Horace Newton Allen)은 21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조선의 사회상을 일기로 남겼어요. 1991년에 출간된 『알렌의 일기』에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서구 열강들의 **줄다리기 외교**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을 뿐 아니라 갑신정변(1884년)의 전개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종합법원인 **제중원**의 개설, 제중원 부설 국립 의학교의 개교 과정이 쓰여 있으며 조선의 정치제도, 경제생활, 전통, 풍습, 민간신앙 등 서울 시민의 생활 모습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31년 영국 잉글랜드 요크셔에서 태어난 지리학자입니다. 영국 왕립 지리학회 최초의 여성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왔던 몇몇 선교사들과 더불어 조선 말의 생활상을 기록으로 남겨, 서양 및 후세에 전한 외국인이기도 했습니다. 1893년 “몽골리안 민족들의 국가와 지리, 민족적 특징 연구”를 기획해 조선으로 떠나기로 하고 1894년 2월 말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고종과 명성황후를 만나는 등 한반도를 답사하며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발간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강을 통해 조선을 여행하여 그 여행기를 책에 실었고, 그녀의 한강 여행은 서울 용산에서 거룻배에 몸을 싣고 광주를 지나 양평, 단양까지 이동하여 남한강 탐방을 마친 뒤 다시 북한강에서 춘천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숍이 한강을 여행하며 타고 다닌 배 | 19세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 | 1897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낮은 고갯길에서 서울 근교의 언덕이 보이고 한강에 이르기 전, 분위기의 영향으로 한강은 더욱 웅장하게 보였습니다. 가드너의 조랑말 대신, 앞기에 더 편안한 소를 타고 한강의 개울을 건너며 나는 도시에서 생산된 분뇨와 소들을 싣고 시골로 가는 나룻배와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곧 가파르고 질척이는 강둑에 도착했고, 도착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가득한 마포의 거리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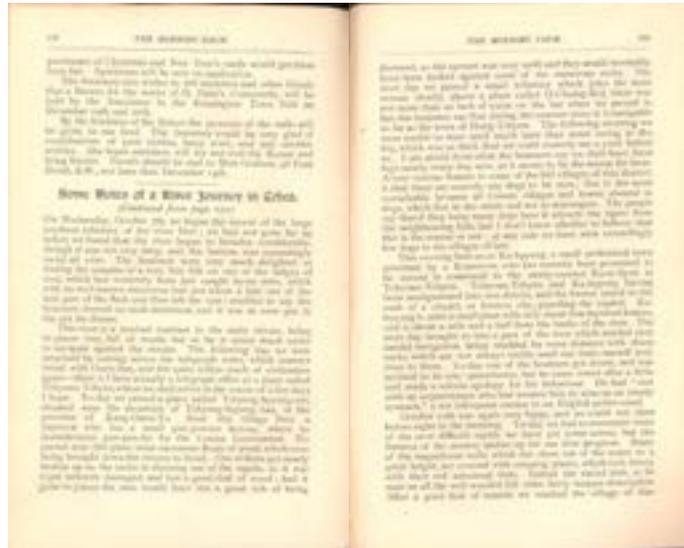
비숍이

한강을 타고 다닌 배

비숍이 타고 다닌 배는 뜻이 없는 작은 배인 거룻배로 크기는 앞뒤 28피트(약 85m), 가장 넓은 부분은 좌우 4피트 10인치였다고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찰스 존 코프

찰스 존 코프는 고요한 주교라고도 불리는 성공회 최초의 조선지역 파견 주교이자 초대 조선교구장입니다. 코프 주교는 1890년에 영국을 떠나 조선으로 출발하였고 부산을 경유하여 9월 29일 제물포에 당도했으며, 거기서부터 대한성공회의 선교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프 주교(The Rt. Reverend Charles John Corfe)와 동료들은 종교잡지인 『모닝 캄(THE MORNING CALM)』에 조선에서의 선교 상황과 강화도, 마포 등 당시 국내의 생활상을 기고하기도 하였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과 유사하게 한강을 통하여 여행한 여행기를 신기도 하였어요.



『한강을 따라간 한국 여행(Some notes of a river journey in Corea)』 『더 모닝 캄(THE MORNING CALM)』 | 1893년 | 성공회대학교 성공회역사자료관 소장

“한강에서 조금 위, 강의 왼쪽에 있는 언덕의 일부는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공고한 울타리 안에는 과거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다는 자리가 보존되어 있으며, 용이 안식을 취하는 장소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뭄과 홍수 때 모두 기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 근처에는 용을 모시고 있다는 법당이 있다. 여행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음악과 노래를 즐기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한국인들로 가득 찬 몇 척의 유람선을 보았다. 그들은 대개 춤을 추는 여성들과 함께 있었고, 여성들은 다양한 재능을 발휘해 떠들썩하게 흥을 돋우고 있었다.”

호러스 뉴턴 알렌

호러스 뉴턴 알렌은 안련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주한 미국 공사입니다. 알렌은 북장로교 소속 의료 선교사로 1884년에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알렌이 유명해진 것은 갑신정변 이후로, 갑신정변이 터지고 개화파의 칼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수술해 목숨을 구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알렌은 조선에서 활동하며 한국 각지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 자연 환경,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상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주요 생산품 등 보고 들은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알렌의 외교관 여권 | 1898년 |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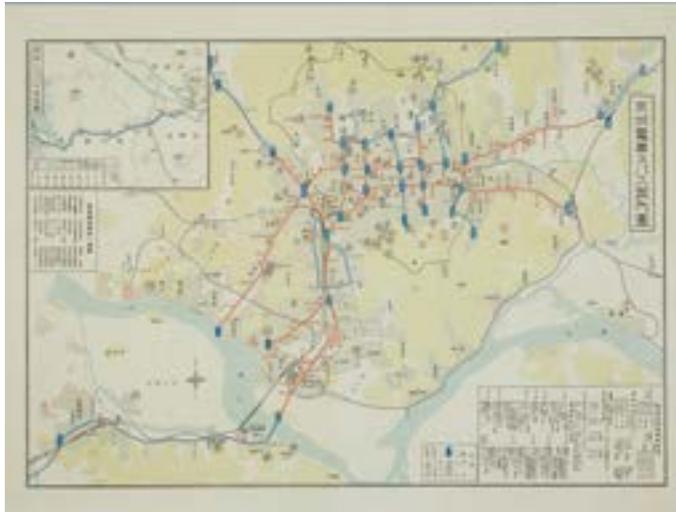
알렌의 외교관 여권

알렌이 미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급받았던 여권입니다. 미국무장관 존 헤이가 알렌에게 외교관의 특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더 모닝 캄

모닝캄에 수록된 한양에서 출발하여 한강을 통해 남한강, 북한강 일대를 여행한 여정을 수록한 여행기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사와 당대 한강 일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역사 자료입니다.

한강에서 한강변으로



경성전차버스안내도 | 1930년대 추정 | 용산역사박물관 소장

경성전차버스안내도

경성에서 운행되었던 전차 및 버스 노선도입니다. 전차는 빨간색, 버스는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차

전차란 공중에 가설한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의 힘을 동력으로 하여 궤도 위를 달리는 차량을 말합니다.

교두보

교두보란 아군의 상륙이나 도하작전을 위한 발판으로 적군 점령지의 한 모퉁이에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 마련된 작은 군영을 말합니다.

근대가 되며, 철도와 도로교통이 발달하자 비교적 한강은 길로서 쓰임새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변의 넓은 부지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설 수 있는 하나의 토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강의 뛰어난 풍경 덕에 관광노선 중 하나로서 이용되었습니다. 한강변에 들어선 교통수단은 철도, 비행장, 도로, 전차 등이 있었답니다.

여의도 비행장을 통해 서울에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오늘날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63스퀘어,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한국(증권)거래소, 포스트타워등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이지만, 과거에는 모래밭으로 뒤덮인 한강 위의 쓸모없는 섬이었어요. 여의도가 변화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는데 일본은 불모지였던 이곳에 비행장을 만들어 중국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이용했어요. 여의도 비행장은 개항 초기만 해도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 기항지에 불과했으나 이후 항공 노선의 다각화로 많

은 사람과 물자가 운반되면서 일제 하늘길의 중심이 되는 항공 포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비행장을 통해 서울에 온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경성비행장 사진 | 1930년대 추정 | 손기정기념관 소장

용산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1916년부터 여의도를 연병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연병장 한쪽에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설치해 간이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의도 비행장은 활주로와 조명탑 등의 시설을 갖추며 1928년부터 정식 비행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경성비행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여의도 비행장은 점차 항공이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자 군대와 민간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변화되었어요. 항공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여의도 비행장을 오가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1917년 5월에는 세계적인 곡예 비행사인 미국인 아트 스미스가 여의도 비행장에서 청중들 머리 위를 아찔하게 지나가는 초저공 비행과 급반전 비행을 포함하여 연기로 공중에 다 글씨를 쓰거나 비행기 날개에 사람을 세워놓고 나는 등의 곡예비행을 선보였어요. 이 비행쇼의 인기는 대단히 높아서 당시 경성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5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해요. 1920년에는 공군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던 이탈리아의 공군 중위 페라린과 마세르가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하여 서울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1922년에는 한국인 최초의 비행사로 알려진 안창남이 고향 방문을 기념해 금강호를 타고 여러 차례 시범비행을 진행하여 이 행사를 보기 위해 여의도 일대에 모인 군중을 열광시켰습니다. 1931년에는 영국의 여성 비행사인 에이미 존슨이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

연병장

군인을 훈련하기 위하여 병영 내에 마련한 운동장을 말해요.

격납고

격납고는 항공기나 선박을 육상에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으로 1위에 올랐던 손기정 선수는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의 국기를 가슴에 단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화환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시상대에 올랐어요. 베를린올림픽이 끝난 후, 손기정 선수는 경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했으나 일본 경찰은 환영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연행하여 일제의 종교시설이었던 신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손기정 선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었고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해요.



베를린올림픽 이후 경성비행장에 도착한 손기정 | 1936년 | 손기정기념관 소장

베를린올림픽 이후 경성

비행장에 도착한 손기정

여의도 비행장으로 돌아온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귀국비행은 대형행사였습니다. 식민지인 조선의 청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손기정이 금메달 시상식 때 월계관수 모욕으로 일장기를 가린 일과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을 빌미로 경성비행장에 도착한 손기정을 연행하듯이 끌고 갔습니다.



아트 스미스

아서 로이 스미스 (Arthur Roy Smith)는 비행사입니다. 스미스는 1916년과 1917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를 여행했고 여의도 비행장에서 곡예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과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에게 비행을 배우도록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미 존슨

에이미 존슨은 영국의 비행사이자 최초로 대륙횡단을 성공한 여성 비행사입니다. 에이미 존슨은 1930년 영국에서 호주 시드까지의 비행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대륙횡단 비행에 성공한 여성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1931년 에이미 존슨은 비행기를 타고 전세계 곳곳을 누볐고 한국도 그 중 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1931년 8월 경성 비행장에 착륙한 에이미 존슨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에이미 존슨과 그 가족들 | 1936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아르투로 페라린과 귀도 마세르

아르투로 페라린과 귀도 마세르는 이탈리아의 비행사들입니다. 이 둘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경연대회에 전념하며 비행을 이어갔는데요. 둘은 전투기를 타고 109시간의 동안 8000km를 비행하였고, 해당 비행은 그리스, 시리아, 인도, 버마, 태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재 베트남),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를 거쳐갔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거쳐갈 때 두 사람이 방문한 것이 여의도 비행장이었습니다.



안창남

안창남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비행술을 배워 항일 무장 투쟁에 참여한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창남은 아트 스미스의 곡예비행을 보고 비행사의 꿈을 키워 일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비행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안창남은 면허 취득을 기념하기 위한 '고국 방문 대(大)비행'에서 서울 여의도에 전국에서 모여든 5만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기 금강호(金剛號)를 타고 서울 장안을 한 번 돌고 여의도 상공에서 비행기의 자세 고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고등비행 묘기를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손기정

손기정은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수립 초기까지 활약하였던 한국의 육상선수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의 금메달리스트였으나 식민지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일장기를 가리고 메달을 수상할 수 밖에 없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 탓에 손기정은 경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 당시, 일본 경찰에 의해 환영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당했고 이후엔 감시받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손기정은 광복 이후에는 체육인 지도자이자 체육 행정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서울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의 체육발전을 위해 활약했습니다.

참고문헌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사” - 서울역사편찬원(1985)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의 젓줄, 한강” - 국립민속박물관(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의 어제와 오늘” - 서울역사편찬원(200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2008)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기획연구1,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7)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8)

서울역사편찬원, “서울도시계획사 제3권” - 서울역사편찬원(2021)

서울역사박물관, “모래섬 비행장 빌딩숲 여의도 전시 도록” - 서울역사박물관(2021)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gangofficial>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홈페이지 - <https://hangang.seoul.go.kr>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 <https://archives.seoul.go.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

03

한강을 두고 싸웠던 사람들

01 한강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

02 한강을 요새로 만든 사람들



01

한강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



풍납토성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역사적으로 한강 유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삼국시대에는 분쟁 대상이 되었던 요지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기지역**(近畿地域)이자 국토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한강 유역은 역사의 흐름이나 시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빼앗거나 지켜내야 할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풍납토성

풍납토성은 백제시대 한강 변에 흙으로 쌓은 평지성으로 풍납토성이라고 불립니다. 삼국사기에 언급되는 하남위례성이 풍납토성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근기지역

근기(近畿) 지역이란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을 말합니다.

한강을 두고 전투를 벌였던 삼국시대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

한반도의 중부지역을 가로지르는 한강 유역은 삼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세 나라의 충돌이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에요. 한강 유역은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강 주변의 토지가 넓고 비옥하여 농업 생산력이 높았으므로 한강을 차지한 국가는 국력을 강화하기에 유리했어요. 또한, 한반도의 지리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는 국가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한강을 두고 전투를 벌였던 대표적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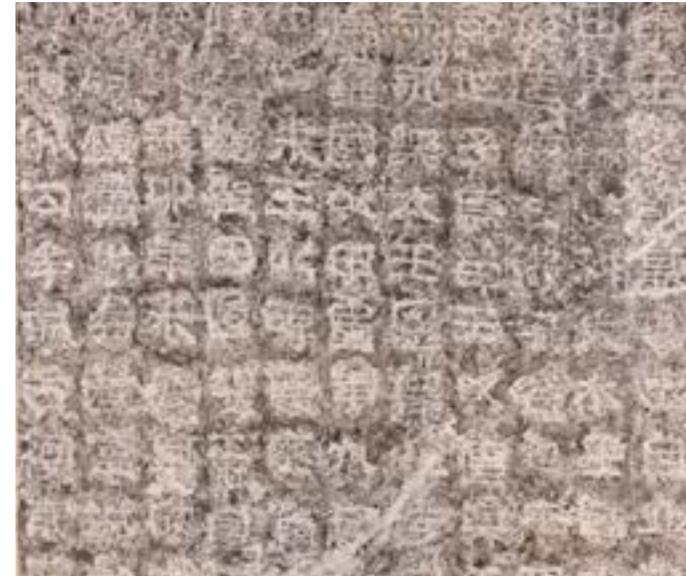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한강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어 전국을 통치하기에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 경제, 사회, 외교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점유한 국가는 영토 확장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강력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강 유역은 삼국의 세력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되었어요. 삼국 중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의 주인이 된 나라는 백제였어요. 백제는 4세기에 국가 간 세력다툼에서 힘의 우위를 지켜나가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5세기 무렵 대규모 정복사업으로 국력을 키운 고구려 광개토왕이 한강 서북부를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자 백제는 빼앗긴 한강 유역의 탈환과 수도 방어를 위해

필사적인 대응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의 침공(475년)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약 500년간 나라의 중심이 되었던 한강 유역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광개토왕

광개토왕은 삼국시대 고구려 제19대 왕입니다. 광개토왕은 즉위 초부터 적극적으로 백제를 공략하여 한강 너머까지 진격하였으며 백제가 왜(일본)와 연합해 고구려의 대방고지(帶方故地)와 배후 신라를 치자 병력을 보내 왜구(일본 해적)를 궤멸시켰습니다. 거란·식신·숙신을 정벌하는 등 고구려의 영토와 세력권을 크게 확장했으며 내정 정비에도 노력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광개토왕릉비 탁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장수왕

장수왕은 삼국시대 고구려의 제20대 왕입니다. 광개토왕의 장자 장수왕은 고구려 시기 최대의 영토를 확보한 왕이자,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체제 정비를 단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장수왕은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백제·신라 방면으로의 진출하여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살해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대방고지(帶方故地)

대방고지란 중국 한나라가 설치하였던 군현인 대방군(帶方郡)의 터를 말합니다.

광개토왕릉비 탁본

광개토대왕릉비는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의 공적을 기리고 아버지의 묘를 지키기 위한 묘지를 책정하기 위하여 세운 석비입니다. 탁본은 이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져 있던 내용을 베껴낸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신라 진흥왕이 세운 순수책 경비(巡狩拓境碑) 가운데 하나로, 한강 유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한 뒤 왕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산에 세운 비석입니다.

개로왕

개로왕은 삼국시대 백제의 제21대 왕입니다. 개로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대귀족들을 주요 관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개로왕의 정책은 오히려 백제 내부의 결속을 와해하고 왕실의 지배력 자체를 약화시키게 되었고 이후 475년, 백제의 발상지이자 중심부인 한강 유역 일대를 고구려에 빼앗기면서 개로왕은 고구려의 포로가 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아차산성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이후 6세기에 새 도읍 웅진(지금의 공주)에서 힘을 키웠던 백제는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몰아내고 한강 상류 10군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며 76년 만에 다시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지만 불과 2년 후, 한강 하류의 경제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절감한 진흥왕에게 기습당해 한강 하류의 6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진흥왕의 일방적인 동맹 파기에 격분한 백제는 이듬해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투를 벌였으나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강 유역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강 유역 전체를 점령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거점까지 확보하게 된 진흥왕은 이후,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외세인 당나라까지 몰아냈어요. 결국, 신라 진흥왕은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한편, 백제와 동맹을 맺은 신라가 한강 이북으로 고구려를 몰아냈을 당시 탈환했던 충청북도 단양군 죽령 일대는 『삼국사기』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양국의 영토 분쟁지역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이 백제와 연합하여 죽령 이북의 열 개 고을을 탈취하자 고구려 명장 온달이 자청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죽령 이북의 잃은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여기에 언급되는 온달 장군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온달과 평강공주’ 설화의 주인공이랍니다.

아차산성

아차산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남단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입니다. 아직 발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어떤 국가에서 쌓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신라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중국의 통일 왕조 중 하나로 618년 건국되어 907년 멸망하기까지 289년간 유지되었던 왕조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돕는 등 동아시아 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진흥왕

진흥왕은 삼국시대 신라의 제24대 왕으로, 한강 유역과 함경도 일부 지역까지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던 왕입니다. 진흥왕은 고구려의 내분을 틈 타 백제와 연합하여 나제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백제와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후 552년에 서북쪽의 북제와 돌궐을 견제하고자 동맹을 제안한 고구려와 여러동맹을 맺은 신라는 553년,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이번에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고 통치를 위한 신주(新州)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한강 유역 전역을 차지하게 된 신라는 삼국 통일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권 제44열전 | 김부식 | 1145년 | 국가유산청 제공

12년 신미(551년)에 왕이 여덟 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침략하게 하였다. 백제 사람들이 먼저 평양을 공격하여 격파하자 거칠부 등은 승세를 타고 죽령(竹嶺) 바깥에서 고현(高峴) 안쪽에 있는 고구려의 10군을 빼앗았다

- 『삼국사기』 권 제44열전

성왕

성왕은 삼국시대 백제의 제26대 왕입니다. 백제의 숙원 과제이던 한강 유역 탈환을 위해 신라·가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6군을 회복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왕은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 진흥왕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이에 다시 신라와 싸우던 중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북병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습니다.

한강을 요새로 만든 사람들

온달

옛날 고구려에는 생김새가 우스울 정도로 못생겼고 남루한 꼴로 매일 구걸하면서 사는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고구려의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공주는 어릴 적 울보여서 평원왕은 늘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어 귀족인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그녀는 “임금은 허언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온달과 혼인하게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 평원왕은 그녀를 궁중에서 쫓아냈어요. 평강공주는 온달을 찾아가서 궁궐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패물을 팔아 말과 소를 사는 등 넉넉하게 살림살이를 꾸리고 온달에게 말 부리기와 활쏘기를 연습시켰어요. 수년이 흐른 후, 나라에 큰 사냥대회가 열렸는데 온달은 이 사냥대회에서 훌륭한 기마와 활쏘기를 선보여 왕과 신료들에게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북주(北周)의 무제(武帝)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자 온달은 선봉에 나서 북주의 대군을 격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큰 활약을 펼쳤고, 평원왕은 “이 자가 바로 나의 사위다”라고 선언하면서 온달에게 대형(大兄)이란 벼슬을 주었습니다. 이후 평원왕이 죽고 평강공주의 오빠인 영양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온달은 영양왕에게 신라에게 빼앗긴 죽령 이북 한강 유역을 되찾아 오겠다고 출정을 요청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떠날 때 온달은 “계립령(鷄立嶺)과 죽령(竹嶺) 서쪽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이후, 그를 장사 지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관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생사가 이미 결판이 났으니, 아아 편히 돌아가시라” 하니 그제야 온달의 관이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온달산성 | 문화재청 제공

온달산성

단양 온달산성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한강이 보이는 성산의 정상부근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을 의미합니다. 온달산성은 아단성과 함께 온달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고려궁지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한강은 그 폭이 넓고 깊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천혜의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강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한강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한강을 차지했던 나라들은 한강의 이점을 가지고 외세에 맞설 수 있었으나, 한강을 빼앗긴 나라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고려궁지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 19년(1232)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아건물입니다. 강화에 터를 잡고 고려의 집권층은 물자를 이송하기 위해 한강변에 있는 나루터를 정비하였으며, 정비된 나루터들은 조선시대에도 주요 나루터로 사용되었습니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고려 후기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대장경으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에 소장된 불교경전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중부의 난

1170년 정중부등이 문신귀족 정치에 반발해 일으킨 난으로, 무신들이 일으킨 난이라 하여 무신정변이라고도 합니다.

최우

고려의 무신으로, 무신정권의 제6대 집권자입니다. 최우는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지택에 관리의 인사행정을 다루는 사설정치 기관인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문관과 무관의 인사를 처리했으며, 대몽항쟁을 위해 수도를 옮기는 강화 천도를 단행하였습니다.

삼별초

삼별초란 고려시대 경찰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의 명칭입니다. 무신집권기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 존재하던 좌별초·우별초·신의군을 말하지요.

고려시대에 외세와 벌였던 전쟁에서 한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고려시대의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대였어요. 특히 중국에 송, 거란, 서하, 금, 몽골 등 다양한 국가들이 공존하던 국제질서 속에서 몽골이 우위를 차지하며 북방 민족 최초의 정복국가인 몽골제국을 이룩했습니다. 주변국을 차례로 정복해가던 몽골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고려를 침입했어요. 약 40년간 지속된 몽골과의 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은 피폐해졌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 백성들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몽골군 사령관을 사살했고 충주성에서는 노비들로 구성된 부대가 수령과 귀족들이 모두 피신한 사이에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고려의 대표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16년여 만에 걸쳐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외세의 침략을 막고자 간행한 불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몽 항쟁 기간에 한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 •

1231년, 만주를 중심으로 광대하게 세력을 넓힌 몽골은 고려를 침략했고 내정을 간섭했어요. 당시 고려는 **정중부의 난**(1170년)이 세운 무인 정권기였는데 이 정권의 수장인 **최우**는 강화도가 개경에서 가깝고 해전에 약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는 요새라는 것을 내세워 반대 세력을 누르고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고려가 강화도를 임시 수도로 삼게 되자 남경과 강화도를 잇는 한강 수로 및 한강 하구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는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고려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곡을 차질없이 운송하기 위해 한강변의 나무들을 정비하여 한강 수로를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그 결과 전국 각지의 세곡이 한강 수로를 거쳐 무사히 강화도로 운송될 수 있었고 한강 수로를 통해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조운의 명맥은 이후, 조선 개국과 더불어 한양 천도를 결정지을 때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한편, 도성과 임금을 보호하는 친위대로서 무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개경 환도에 반대하며 끝까지 몽골에 맞서 고려의 자주성을 지켰어요. **삼별초**의 대몽 항쟁의 원동력은 백성들의 지지와 투쟁이었으며 이들로 인해 고려는 몽골이 침략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조선시대에 외세와 벌였던 전쟁에서 한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천혜의 방어 조건을 갖춘 한강은 전쟁 등의 국난이 일어났을 때 수도 한양을 보호하는 자연적 요새의 기능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던 외국과의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특히, 임진왜란(1592년)과 병자호란(1636년)을 비롯하여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등의 외세 침략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롯해 사회 구조와 생활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외세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전쟁 당시 한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 • •

1592년, 일본의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20만 일본 대군이 ‘명을 침략하고자 하니 조선은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입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에, 조선은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제천정(濟川亭)을 지휘소로 삼아 수도였던 한양을 방어했으나 충주에서 **신립**(申輿) 장군이 패배하자 왜군 일부는 남한강을 건너 서울의 동쪽으로 진격해 왔고 한강변에 도착한 다른 왜군 부대도 강을 건너 도성에 접근했어요. 이후 조선군은 패배를 거듭하며 압록강까지 밀려났으며 당시 임금이던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한양을 포기하고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열을 가다듬은 조선은 남한강



병인교난 | 20세기 | 탁희성 | 절두산순교자박물관 소장

병인양요

병인양요란 1866년에 흥선대원군 정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의 천주교 박해사건. 병인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한 전쟁입니다.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1871년 미국 군함이 강화도 해협에 침입한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선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고니시유키나가는 일본 상인 출신의 무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수였습니다.

가토 기요마사

가토 기요마사는 일본의 무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제2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임진왜란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발생한 정유재란 때에도 참전한 장수였습니다.

신립

신립은 조선 전기 함경도남병사, 삼도순변사 등을 역임한 무신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삼도순변사로 임명되어 충주로 내려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맞섰으나 참패하고 남한강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율

권율은 조선시대 의주목사, 도원수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장수입니다. 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에 제수된 후, 함락된 수도 탈환을 위한 복진에 참여하여 금산군 이치 전투와 수원 독성산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투에서 왜적의 보급로와 진출로를 차단했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전함으로써 왜군을 퇴각 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한강 유역인 양평의 구미포, 여주의 마탄 등지에서는 조선과 의병이 힘을 합쳐 북상하는 왜군을 격퇴하기도 했어요. 결국 식량부족과 전쟁에 지친 왜군은 지금의 용산구 한강변 언덕에 있던 심원정(心遠亭)에서 조선과 연합한 명나라와 강화회담을 체결한 후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약 7년 동안 계속되었던 임진왜란의 피해가 온전히 복구되기도 전에 조선에는 또 다른 외세의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였는데 인조 때의 서인 정권은 과거의 중립외교가 아닌,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親明排金)정책을 펴서 후금의 반발을 사게 되었어요. 이후 국력이 강해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만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침입하는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군이 한양을 점령하자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파천하여 45일간 항전했어요. 그러나 조선은 결국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인조는 당시 송파나루 인근에 있던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는 강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전쟁 기간은 짧았지만 한강을 포함한 서북 지방의 피해는 임진왜란 못지않게 크고 깊었습니다. 두 차례의 거대한 외세 침략을 겪었던 조선은 근대로 향하는 세계적인 시대 변화에도 쇠국정책을 고수하며 19세기를 맞이했어요.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치명일기(致命日記)

『치명일기』는 조선교구의 주교 뮈텔(Mutel, G. C. M)이 병인박해 이후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자료를 4년에 걸쳐 수집하고 각 순교자들의 행적을 지역적으로 정리 간행하여 전국의 공소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치명일기(致命日記)』 | 뮈텔(Mutel, G. C. M) | 1895년 | 오륜대한국순교자 박물관 소장

를 어지럽히며 힘의 주도권을 쥐었던 서구열강은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의 불법 침략을 강행했어요. 198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는 조선에 밀입국한 프랑스 신부 등을 공개 처형한 **병인박해**(1866년)를 핑계 삼아 프랑스군대가 한강 하구와 강화도 일대에 무력을 동원해 침입한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한양 도성의 지형과 한강수로 등의 시설을 염탐했고 강화도에 이어 김포시 문수산성까지 점령하며 기세를 떨쳤어요. 하지만 프랑스군은 강화도 잠입에 성공한 조선군의 근거리 공격에 패배한 후, 즉시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한 달간 강화도를 점령했던 프랑스군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면서 무기, 화약, 관사 등을 방화하고 은괴, 서적, 외규장각 의궤 등 중요 문화재를 약탈했어요.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 교섭을 명분으로 미군 함대가 협의 없이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와, 조선과 전투를 벌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강화해협의 요새였던 광성보가 함락되고 조선의 장수 어재연을 비롯한 수비 병력 대다수가 사망했습니다. 미군은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에 주둔하였으나 조선의 완강한 저항에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어요. 조선은 신미양요 이후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6·25 전쟁은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유엔(UN)군과 중국의 인민군이 함께 참전했던 국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한반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남한과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회 및 경제 기반이 철저히 파괴되어 한반도 전체가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당시 한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군의 한강 도하 | 1950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소장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1866년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정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을 말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평양에서 군민의 공격으로 인해으로 불타버린 사건입니다.

통상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척화비

척화비는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국 교통 요충지 200여 개소에 세운 비석입니다.

한강 도하

강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방어선이자 장해물로 인식되었으며 강을 건너는 도하작전의 성공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은 북한의 남침 이후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국군과 유엔(UN)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는 등 6·25 전쟁의 전세가 뒤바뀐 군사작전을 말합니다.

38선

38선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그른 군사분계선을 의미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한강에서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강을 점령하는 것에 따라 전쟁의 승기가 좌우되었기 때문에 한강 일대는 남한과 북한군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투의 핵심 무대였던 한강은 전쟁의 비극을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한강인도교는 6·25 전쟁이 된 지 3일 후인 1950년 6월 28일에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철교, 광진교 등과 함께 폭파되었어요. 이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은 국군과 유엔(UN)군은 일대에 남아있던 북한군을 몰아내기 위해 영등포와 여의도를 점령하여 거점으로 삼은 뒤 노량진, 행주산성, 마포, 용산, 서빙고 나무 등으로 도하작전을 펼쳐 한강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UN)군은 민가나 상가가 많이 늘어난 도심에서 시가전을 펼쳐 대응하는 북한군을 무찔렀는데 이 과정에서 한강변의 주요 시설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답니다. 한강 일대를 수복한 후 승기를 잡은 남한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38선에 이어 서울 방어선까지 무너지며 후퇴했어요. 이로써 1951년 1월 4일에 사상 최대 집단 피난인 1·4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후에 급하게 만들어졌던 한강 부교와 한강 가교는 1·4 후퇴 당시 엄청난 인파의 피난민을 수용한 후 다시 폭파되었답니다.



한강을 건너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 | 1950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소장

참고문헌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사” - 서울역사편찬원(1985)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의 젓줄, 한강” - 국립민속박물관(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의 어제와 오늘” - 서울역사편찬원(200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2008)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기획연구1,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7)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8)

서울역사편찬원, “서울도시계획사 제3권” - 서울역사편찬원(2021)

조덕현, 서울시 ‘새 한강’ 개발계획 주요내용 - 서울신문, 1999.06.0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90609025001>

서울특별시, 2008 서울시정 @ 한강르네상스 가시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74026](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74026)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gangofficial>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홈페이지 - <https://hangang.seoul.go.kr>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 <https://archives.seoul.go.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

서울기록원, 전시기록이야기#8 한강대교의 비극 - <https://archives.seoul.go.kr/post/2097>

서울기록원, 전시기록이야기#16 추억 속의 한강 - <https://archives.seoul.go.kr/post/2318>

이시우, 한강하구 군사사3-한국전쟁기③ - 통일뉴스, 2006.10.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64>

04

한강의 풍경을 바꾼 사람들

01 한강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들

02 산업화시기 한강의 풍경을 바꾼 사람들

03 한강을 친수공간으로 만든 사람들



01

한강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들



용양봉저정 |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역사 이전부터 한강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강이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연으로써 한강은 그 규모나 위험성 탓에 때때로 개발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강이 주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들은 강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다스리기 위해 다리를 놓거나 제방을 쌓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한강은 물줄기의 형태와 깊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크게 변모되었습니다.

용양봉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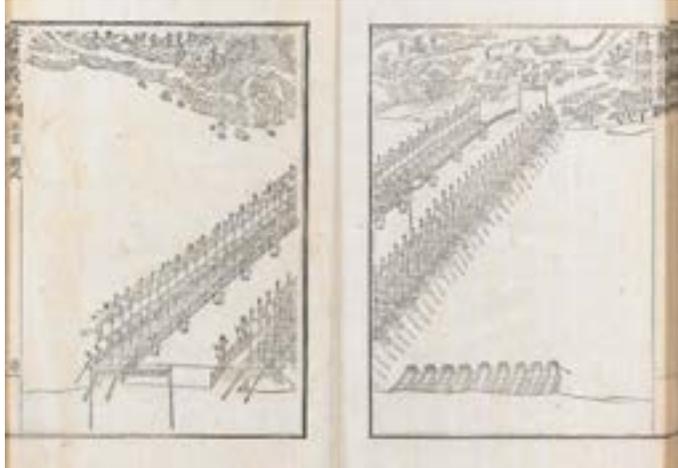
용양봉저정은 1791년에 세워진 누정입니다. 정조가 수원 화산에 있는 아버지 장헌 세자(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에 참배하러 갈 때, 지금 한강의 한 부분인 노들강에 배다리를 설치하고 건너가 잠시 쉬기 위한 행궁으로 지어진 건물이지요

조선시대에 한강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조선시대의 한강은 길 그 자체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육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부 사람들은 배를 이용하는 대신 강물 위에 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너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시 한강에는 어떤 다리가 놓였고, 다리를 놓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의궤(儀軌)

의궤(儀軌)는 실제 행사의 전모를 기록한 행사 보고서와 같은 책을 의미합니다. 즉 『원행음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중심으로 여드레 동안 있었던 수원화성 행차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주교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원행음묘정리의궤』 | 1795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조선시대 왕들은 안전을 위해 한강을 건널 때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자를 올려 만든 배다리를 설치하곤 했어요. 연산군은 청계산에 사냥을 가기 위해 백성들의 배 800척을 동원하여 한강에 배다리를 놓았으며, 정조는 수원에 있는 아버지 장현세자(사도세자)의 무덤, 현릉원을 오갈 때 노량진 일대에 배다리를 설치해 한강을 건넜답니다. 특히 정조는 1795년 2월, 능행과 더불어 어머니였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르기 위해 대대적인 화성 행차를 계획했는데 이때 배다리 역시 그에 걸맞는 규모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어요. 정조의 명을 받은 서용보, 정약용 등은 임금의 행차를 위해 한강에 놓던 배다리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담은 『주교지남(舟橋指南)』을 바탕으로 조선 최고의 배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배다리가 놓일 곳으로는 현재

청계산

청계산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의왕시의 경계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주교지남(舟橋指南)

조선 후기 임금의 행차를 위해 한강에 놓던 배다리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정책서입니다.

의 동호대교 일대를 비롯해 동빙고, 서빙고 지역 등이 거론되었으나 정조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노량이었어요. 노량은 양쪽 언덕이 높아 수심이 깊고 잔잔했을 뿐만 아니라 강폭도 좁아서 배다리 건설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교도(舟橋圖)〉(화성능행도(華城陵行圖)) | 1795년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주교도(舟橋圖)

《화성능행도》는 1795년 정조가 혜경궁 홍씨와 화성에 행차하여 치른 행사 장면을 8폭 병풍으로 구성된 그림입니다. 〈주교도〉는 《화성능행도》의 마지막 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교도〉를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배를 뒀 뒤 그 위에 길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함께 건널 수 있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 근대 교량을 처음 놓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한강에 첫 근대 교량이 놓여진 시기는 대한제국시기입니다. 한강에 놓여진 첫 근대 교량은 경인선 철도를 위하여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노량진동을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한강철교였습니다. 한강철교는 1897년 3월 29일 기공식을 올리고, 1900년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철교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한강철교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강철교 | 1930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당시 한강철교를 놓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으로부터 한강철교의 부설권을 얻어야 했습니다. 가장 처음 이 부설권을 얻었던 것은 미국인 기업가인 제임스 모스였어요. 제임스 모스는 경인선 철도를 부설하고자 철도의 부설권과 함께 철교의 부설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스는 진행 도중,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철도 건설을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경인철도부설권을 매수하기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자본가 이와사키 야노스케(岩崎彌之助),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등은 1897년 5월 4일 경인철도인수조합을 결성하였고, 더불어 일본의 중의원과 귀족원이 경인선의 부설에 필요한 자금 180만엔을 이 조합에 대출해 주도록조치함으로써 필요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경인철도인수조합은 자금난 등에 직면해 있던 모어스에게 경인철도를 미국과 일본의 공동 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모어스는 철도 건설 후의 모든 권리를 매각할 의향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897년 실질적인 철도부설권은 경인철도인수조합에 넘어가게 됩니다. 한강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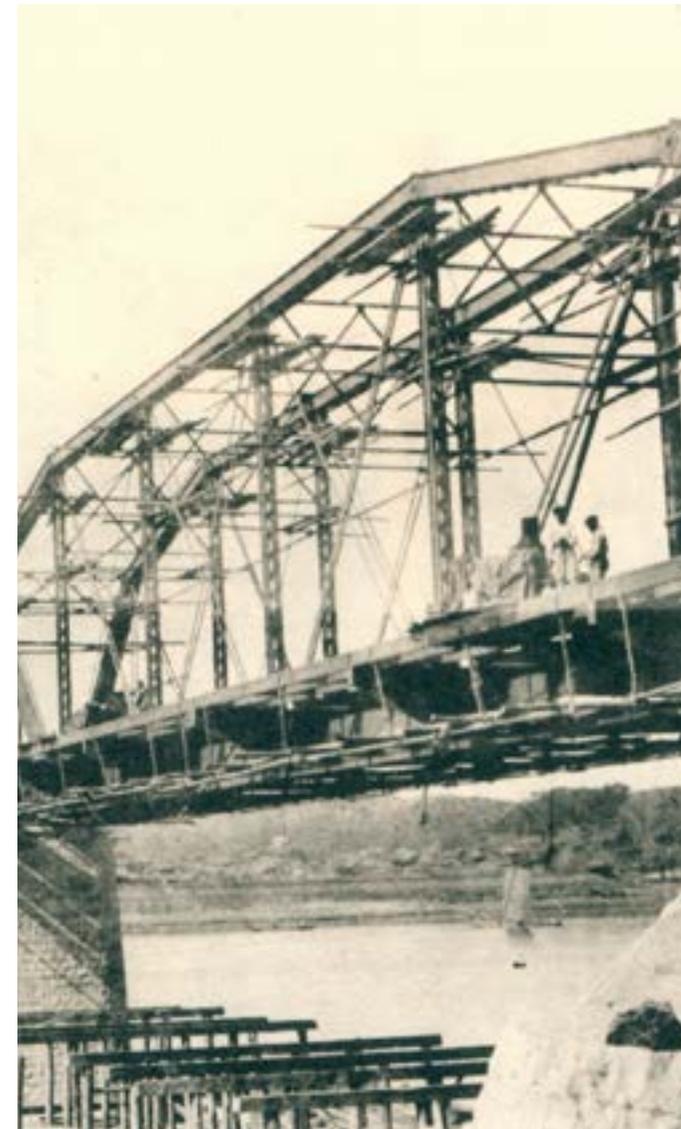
이와사키 야노스케

이와사키 야노스케는 일본의 사업가로 일본 3대 재벌 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의 2대 사장이었습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근대 일본의 사업가입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에 정부 대장성 관료이자 제일국립은행 초대 총재를 지냈습니다.

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사히 완공되었지만, 철도의 건설과정에는 경인철도의 용지로 강제 편입된 부지가 상당했고, 거기에 민간 소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보상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경인철도에 편입된 부지는 「특허조관」에서 한국정부가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 및 가옥의 보상은 1907년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대한제국 정부의 난제로 남았습니다. 완공 이후 일본의 침탈이 심해지며 이내 국권이 넘어가게 되자, 철도는 한반도의 자원을 빼앗는데 사용되었으며 철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한강에 수운업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철교 | 1930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강철교

한강철교는 한강 위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교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노량진동을 잇는 철도 전용 다리입니다. 한강철교는 건설 당시 가장 큰 규모로 제물포와 노량진을 잇는 다리였으며, 경인선 철도가 통행하였습니다.

산업화시기 한강의 풍경을 바꾼 사람들



난지도 수해현장 | 1976년 | 서울기록원 소장

한강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삶의 터전이었지만 해마다 홍수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주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홍수는 많은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매년 다수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어요. 이를 바꾸기 위해 서울시는 1960년대부터 한강을 개발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시대의 ‘한강 개발’은 누구의 주도로 추진되었을까?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었던 1960년대에도 한강에 인접한 시가지 대부분은 매년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던 때 홍수 피해는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만성적인 자연재해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 증가는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일으켰으며 집을 지을 택지를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강 개발은 서울시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강 개발 정책은 누가 세웠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966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김현옥은 홍수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는 ‘돌격건설’이라는 시정 구호를 내걸고 한강 연안 개발을 비롯하여 여의도 개발, 강변도로 건설, 시민 아파트 조성 등 한강 이남의 개발을 통해 한강 이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를 분산시키는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펼쳐나갔어요. 김현옥 시장은 물러나기 전까지 오늘날 서울의 공간적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었답니다.



김현옥 시장 강변도로 공사현장 시찰 | 1967년 | 서울기록원 소장

특히, 김현옥 시장은 1차 한강개발 당시의 공사현장을 순시하며 작업자나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등 한강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한 한강 제방이자 서울 교통의 중심인 강변도로 건설이 완료되자 강변일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일로매진(一路邁進), ‘오로지 한 길로 하자’라는 의미로 불도저 시장이라고도 불렸던 김현옥 시장의 거침없는 도시 개발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옥 시장 강변도로 시찰

김현옥 서울시장이 한강변도로를 시찰하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장면입니다.

김현옥

김현옥은 서울특별시 제14대 시장으로 재임기간은 1966년 3월 31일부터 1970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제12~13대 경상남도 부산시장, 제13대 부산시장, 제내 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강과 관련된 김현옥 시장의 정책에는 자동차 전용 입체고가도로 건설 및 주요 간선도로 확장 포장, 한강개발사업, 400여동의 시민아파트 건설, 영동1.2지구, 화양 망우지구, 시흥 신림지구 등 대규모 구획정리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김현옥 시장의 뒤를 이은 양택식 서울시장은 ‘두더지 시장’이라는 별명답게 소리 없이 개발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위생과 편의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생활 행정’이라는 시정 구호 아래 기존 수원지를 증축하여 당시 긴급했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분뇨 및 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도시가스 공장, 생활품 비축 창고 건설, 지하철 건설, 영동과 잠실지구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했어요. 또한 1972년 8월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긴급수해 복구 5일 작전’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도 했습니다. 양택식 서울시장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서울을 인구 1,000만 명의 광역도시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낸 시장이었습니다.



양택식 서울시장 잠실대교 시찰 | 1972년 |서울기록원 소장

양택식 서울시장 잠실대교 시찰

잠실대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과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을 잇는 한강의 다리입니다. 해당 사진은 1972년 양택식 서울시장이 잠실대교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실대교는 영동 및 잠실지구 개발과 연계 건설되었으며, 사진이 찍힌 당시 197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68%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양택식

서울특별시 제15대 시장으로 재임기간은 1970년 4월 16일에서 1974년 9월 1일까지입니다. 경상남도 부지사, 철도청장, 경상북도지사를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강 관련 그의 주요정책으로는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 확정, 무허가 건물 정리 10개년 계획 및 인구 분산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김현옥, 양택식 서울시장에 의해 이루어졌던 1차 한강 개발에 이어 1983년에 서울시장에 취임한 염보현 시장은 1980년대의 2차 한강종합개발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 중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지하철 2·3·4호선을 완공하는 등 대형 사업들을 진행해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한강 물줄기의 형태와 깊이는 염보현 시장이 추진한 2차 한강종합개발이 낳은 결과물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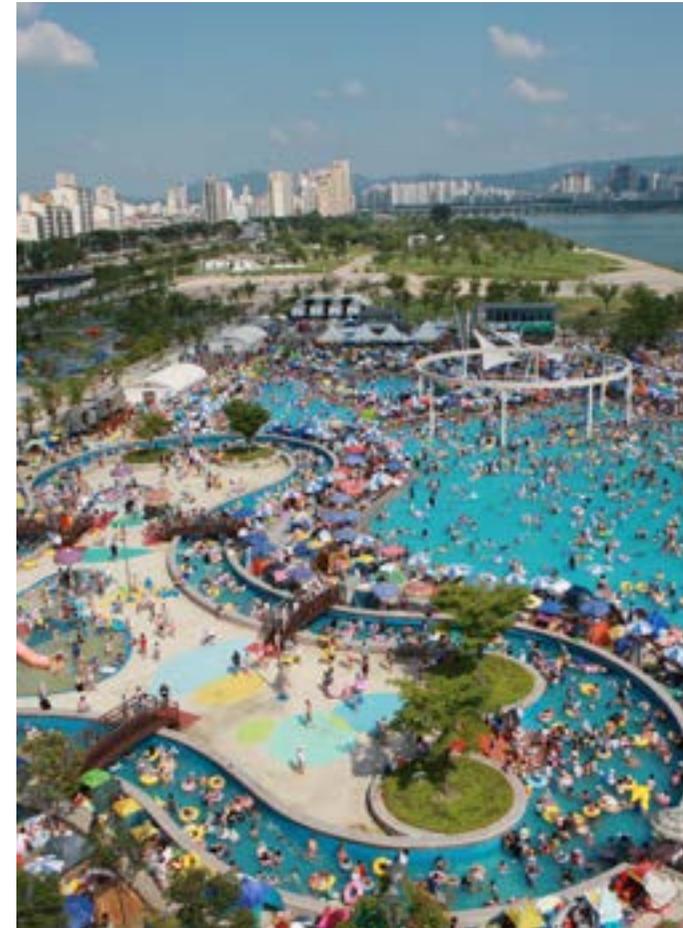
염보현 시장은 88 서울올림픽을 한강종합개발과 연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림픽은 국제 대회인 만큼 전 세계에 발전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한강은 잦은 침수 문제가 있었고 오폐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주요공간이었던 잠실 뿐 아니라, 그 인근의 한강을 반드시 정비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잠실 주변의 탄

접안시설

접안시설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여 실제로 화물의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를 안전하게 부두 벽면에 고정해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당시 양택식 시장의 한강개발은 인구 분산 등 서울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지만, 1960년대 한강개발에 참여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은 영동지구 개발 이유에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진행된 것이 잠수교 건설과 **접안시설** 설치였다고 합니다. 잠수교는 폭격 시 폭격기가 교량을 찾을 수 없도록 건설된 다리였어요. 팔당댐의 수문을 열면 잠수교는 30cm정도 잠기게 되는데, 이때 비행기가 잠수교를 찾을 수 없게 되므로 폭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변의 접안시설은 도로가 파괴되었을 때 바지선 등의 선박을 통한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으로 영동대교 하류, 양화대교 등에 설치 되었으며 지금도 인근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강을 친수공간으로 만든 사람들



독서한강공원 수영장

대대적인 치수 사업이었던 한강종합개발은 홍수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사람과 강의 단절을 야기했고, 동시에 강물 및 강변 주변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시민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한강은 그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한강을 탈바꿈하고자 하였습니다.

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고 강바닥을 퍼내 저수로를 정비함으로써 한강의 유속과 저수량을 일정하게 바꾸어 홍수를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잠실에 수중보가 설치되었는데 이 수중보가 한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줌으로써 수위저하에 따른 취수장의 취수 곤란, 하천구조물의 노출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 배로 화물을 운반하거나 여행객을 태운 여객선의 주운(舟運) 문제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염보현 시장 당시에는 올림픽 준비를 위하여 동부간선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한강의 관리권한 때문에 건설부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놓여진 한강, 탄천 일부, 중랑천 일부는 국유하천이었기 때문에 건설부의 소관이었습니다. 당시 하천법은 규정이 엄격했기 때문에 한강에 나무를 한 그루 심으려고 해도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하천법 때문에 건설부와의 실랑이가 오갈 수 밖에 없었고, 염보현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마침내 동부간선도로 건설 허가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염보현

서울특별시 제20대 시장으로 재임기간은 1983년 10월 15일부터 1987년 12월 29일까지이며, 경찰 출신으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염보현 시장의 한강과 관련된 주요시책으로는 한강종합개발 추진, 목동 신시가지 건설, 86 서울아시아게임 개최, 88 서울올림픽대회 준비, 석촌호수 공원계획 수립 추진 등이 있습니다.



올림픽 강상제 | 1988년 | 서울기록원 소장

수중보

수중보는 하천이나 강에서 수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물 속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잠실의 수중보는 한강의 수위 및 유량 조절, 퇴사 및 퇴적오염토 제거, 홍수에 방을 위하여 설치되었지요

강상제(江上祭)

강상제는 한강에서 열린 올림픽의 시전행사입니다. 강상제는 말 그대로 강 위의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역대 올림픽 최초로 메인 스타디움 바깥의 한강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통민요를 배경음악으로 수상스키와 연날리기 등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친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서울시는 한강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 위해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 및 한강 르네상스 등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어요. 그렇다면 이 같은 정책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의도한강공원 공연장 조감도 | 2008년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한강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개발 위주였던 서울시의 정책은 이때부터 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한강 생태계 복구 및 자연성 회복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선 2기 서울시장이었던 고건 시장은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을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풍부한 생태·자연 및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했어요. 지난 30~40년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밀레니엄 공원 조성’ 등 서울을 녹색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진행되었으며, 15년간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생태복원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난지도한강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고건은 서울특별시 제23대, 제31대 시장으로 재임기간은 총 8년으로 23대 시장으로 1988년 12월부터 1990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 후, 다시 31대 서울시장으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재임하게 됩니다. 이후,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강과 관련된 고건 시장의 주요시책으로는 빗물펌프장 확충 및 정비, 제방축조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 추진 및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월드컵공원 등 녹색서울 가꾸기 뿐만 아니라, 2002월드컵 성공적 개최 등이 있습니다.

민선 4~5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의시정, 도심 재창조,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을 주요 시책으로 삼아 차별화된 서울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진행했습니다. 이 중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의 관리 정책을 물의 흐름과 홍수를 예방하는 이수(利水)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하고 휴식, 관광,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휴식·여가공간을 갖춘 친수(親水)로 전환하고자 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각 한강공원에 어울리는 문화시설과 테마공간 조성, 한강 및 강변의 경관 정비, 수상이용 극대화, 한강에서 서해를 배로 오가는 서해 뱃길 프로젝트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했어요.



서울특별시 제33,34대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38대 서울특별시 시장입니다. 한강과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시책으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디자인 서울 등이 있으며 해당 사업으로 한강공원은 천만 시민의 도심 속 쉼터이자 국내외 관광객의 필수 여행지가 되었고 달빛무지개분수, 세빛섬, 광진교8번가, 노을카페 등 한강만의 다양한 랜드마크와 세계에 유례없는 색다른 건축물도 생겨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뒤를 이어 민선 5~7기 박원순 시장은 한강에 대해 자연성 회복과 도시와 한강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030 한강자연성회복 계획' 등을 통해 물길과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힘을 쏟았으며 도시재생 차원에서 중앙정부-서울시-시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진행하여 한강 관리에 관한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제35,36,37대 시장으로 재임기간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입니다. 한강과 관련된 박원순 시장의 주요 시책으로는 2030 서울 플랜, 영동권 발전계획, 2023 한강 자연성 회복, 문화비축기지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다시 한 번 오세훈 시장과 함께 한강 르네상스 2.0이라고도 불리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는 "수변 활력을 한강 도시공간까지 확장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5위까지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업으로 대관람차(트윈링) 및 노들예술섬 조성, 리버버스를 포함한 수상교통 활성화,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조성, 보행교 조성, 노을명소와 놀빛광장 조성,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참고문헌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사" - 서울역사편찬원(1985)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의 젓줄, 한강" - 국립민속박물관(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서울역사편찬원, "한강의 어제와 오늘" - 서울역사편찬원(200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2008)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기획연구1,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7)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서울역사박물관(2018)
 서울역사편찬원, "서울도시계획사 제4권" - 서울역사편찬원(202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은 지금 공사중" - 서울역사편찬원(2022)
 조덕현, 서울시 '새 한강' 개발계획 주요내용 - 서울신문, 1999.06.0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90609025001>
 서울특별시, 2008 서울시정 ⑧ 한강르네상스 가시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74026>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gangofficial>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홈페이지 - <https://hangang.seoul.go.kr>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 <https://archives.seoul.go.kr/>

한강 이야기 총서, 한강의 사람들

발행인 서울특별시 오세훈
펴낸 곳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발행 2024년
총괄 한강문화관광과 오은선
제작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고 김성희, 문향기
감수 국립국어원, 문향기
취재 윤건중, 이후걸, 문향기
편집 윤소윤
자문 송치호
발간등록번호 51-6114345-000017-01



한강은 인류가 정착한 이래로 국가가 생겨난 땅이자, 외적으로부터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요새였으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국가와 이어지는 물리적인 교통로이자 인간 활동의 소통로였습니다. 더불어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에 따라 예술과 문화 창조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설화가 전해 내려왔고, 그에 따른 제의도 함께 이루어졌지요.

역사적으로 한강 유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분쟁 대상이 되었던 요지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기지역(近畿地域)이자 국토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요. 한강에 터전을 잡은 많은 사람들은 한강을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강 유역의 주민들은 깊고 넓은 한강에 적응하고, 이용하고, 바뀌나가기도 하였지요. 한강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배우고 느꼈으며, 그 값진 경험의 산물을 후대에 전승했어요. 오늘날에도 한강은 시대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채 유유히 흘러가고 있지요.

- 『한강 이야기 총서: 한강의 사람들』 중

